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니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29일)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명상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비더피스 사람들' 평화명상대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21일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한국불교 유수의 명상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세계 명상가들이 온라인으로 뭉친다.

불교환경연대, 지혜마을 모지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Be the peace 사람들'은 9월 21일 오후 9시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온라인 명상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에서 '2020 Be the peace' (이하 비더피스 명상대회)를 연다.

2019년 종로 보신각마당에서 열린 첫 비더피스 명상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더피스 명상대회가 진행되는 명상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는 마인드디자인이 불교계 최초로 지난 5월 런칭한 명상관련 전문 온라인 플랫폼으로 마음챙김 관련 숙박, 쇼핑, 행사를 비롯한 정보를 하나로 모은 곳이다.

이번 비더피스 명상대회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작은 제한이 있다. 하얀 옷이란 일종의 '드레스코드'를 맞춰야 한다. 이는 조용히 앉아 함께 명상을 하며,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약속된 퍼포먼스다.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온라인 화상프로그램 'Zoom'을 활용한 비더피스 명상대회서는 사전행사로 오후 8시 30분부터 자유평화마당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비롯해 자비선명상원의 지운 스님 등 명상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평화 메시지를 나눈다.

오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앉아서 묵언으로 명상이 진행된다. 이후 오후 9시 30분부터 40분까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1시간여의 행사가 마무리 된다.

비더피스 명상대회는 6년 전인 2014년 세계평화의날인 9월 21일을 기해 미국 등에서 시작됐다. 한국에는 2019년에 도입됐다. 9월 21일 이전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명상, 요가, 춤, 노래 등을 선보이는 세계인들의 콘텐츠가 비더피스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bethepeacekorea)에서 공유된다. 비더피스 이후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들이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김영수 지혜마을 모지리 대표는 "평소에 명상을 하던 분들이 각자 해오던 방식으로 평화명상을 진행한다. 샌프란시스코, 뉴델리 등 세계 각국의 명상가들과 서울과 성주 등 한국 전국 각지의 명상단체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모이는 기회"라며 "평화를 원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흰옷을 입고 참여 가능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더피스 행사는 사회 치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개대를 모으고 있다. 명상은 개인수행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적 갈등치유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미주현대불교 창간 30주년을 맞아 LA고려사에서 열린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명상대회에는 150달러 참가비에도 참가정원을 넘은 신청과 이후 SNS로 확산되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사회 치유를 위한 한강걷기명상대회도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개최했다.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걸으며 기부동참과 함께 사회갈등 해소에도 마음을 모은 바 있다.

불교계 첫 명상플랫폼 통해
명상지도자 · 대중 한자리에
Zoom으로 화상 명상 진행

21일 오후 9시부터 1시간여
흰 옷 맞춰 입고 평화메시지
SNS 통해 위기 극복공유도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제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영성의 심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누고 구분할 수 없다"며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 대부분은 나와 너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서 서로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해결되는 것들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비더피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주관단체인 'Be the peace 사람들'에는 마인드디자인, 불광미디어, 불교환경연대,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사)자비명상,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름다운사람들,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행복수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02)2231-2011



"탄신 100년 혜암 스님, 그립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혜암 성관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9월 5일 해인사성보박물관에서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전 '빈가보장(貧家寶藏) – 가난한 집에 보물'을 개막했다. 전시에는 혜암 선사의 묵서와 평소 사용하던 장삼, 가사, 안경, 삭도, 친필 원고 등 유품이 공개됐다. 또한, 9월 5~6일에는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 선사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진행됐다. 사진은 특별전 개막식에서 스님들이 혜암 선사 진영에 차를 올리고 있는 모습. 〈학술대회 기사 3면〉 사진=하성미 기자

손상좌까지 의료비 혜택… 승보공양으로 회향

조계종 승려복지회, 근성 스님 49재서 표창 수여

"우리 절은 4대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절이니 작은 나눔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이 간직하셨던 장례비를 나눕니다."

서울 수안사 묘담 스님이 지난 3월경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건넨 봉투에 적힌 글이다. 봉투에는 승보공양금 1000만원이 담겨 있었고, 스님은 한달 뒤인 4월경 또다시 1000만원을 승려복지회에 기탁했다. 그리 풍족하지 않은 절 살림에도 큰 돈을 연이어 승보공양금으로 후원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수안사를 일궈낸 근성 스님부터 상좌 묘담 스님, 손상좌인 도희 스님까지 총 3대가 승려복지회 의료비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것. 승려복지회 출범 이래 3대가 수혜대상이 된 첫 사례다.

근성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 출신으로, 1957년 수안사를 창건해 움막에 다름없던 사찰을 작지만 어엿한 포교당으로 일궈낸 주역이다. 치열한 정진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보시금 한번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고,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함께 보듬으며 포교에도 매진했다. 그렇게 50여 년 세월이 지난 후 수안사는 근성 스님의 상좌 묘담 스님과 손상좌 도희 스님까지 3대가 함께하는 사찰이 됐다.

수안사와 승려복지회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8년 무렵, 연로한 근성 스님이 병고로 인한 병원 치료가 장기화되던 시기였다. 상좌 묘담 스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에 근성 스님이 모아둔 장례비를 치료비로 사용했고, 비슷한 시기 묘담 스님까지 당뇨와 디스크 등으로 병원신세를 졌다. 부족하기만 한 살림에 늘어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손상좌 도희 스님이 승려복지회의 존재를 전해 듣고 의료비 지원을 문의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수안사 스님 3代 수혜 받고
두 번에 걸쳐 1천만 원 전달
혜택 · 후원의 선순환 '귀감'

승려복지회는 근성 스님의 치료비로 2018~2020년까지 3년에 걸쳐 1500여만 원을 지원했고, 묘담 스님 역시 2018~2019년 1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목 부위 혹 제거 수술을 받은 손상좌 도희 스님의 치료비 100여만 원도 지원됐다.

지난 3월 묘담 스님이 승려복지회 승보공양금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한 이유는 명확했다.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기에 다른 스님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것. 이어 4월에도 은사 근성 스님의 장례비를 다시 모아 1000만 원을 승보공양으로 기탁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안사는 3대에 걸친 수혜의 첫 사례이자 승보공양의 취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모범사례로 정착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승려복지회는 지난 7월 18일 근성 스님이 입적한 이후, 수안사를 승려복지 활성화 사례로 선정해 근성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9재날인 9월 4일 서울 수안사를 찾아 표창패를 수여했다. 승려복지회는 "근성 스님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수행이 승가 본연의 공동체 회복과 불교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에 감사를 전하고자 표창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과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려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승보공양 모연을 진행하고 있다. 02)2011-1726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2564(2020)년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모연안내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내일"을 선물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3000배의 염원 그대로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참계좌 하나은행 / 271-910005-95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동참문의 02-723-5101 카카오톡 : @jabinanum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인사 잇달아

신임 교육부장에 서봉 스님
신임 기획국장에 원묵 스님


서봉 스님


원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인사가 잇달아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9월 7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 서봉 스님(前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부교수와 해인총림율원 율원장,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 해인사성보박물관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 신임 기획국장 원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사미계를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총무원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제17대 중앙종회의원, 광주 선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옥천암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종회의원 직능대표 탄원 스님 선출돼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에서 탄원 스님(용인 대덕사 주지, 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원행)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문화 분야 중앙종회의원에 단독 출마한 탄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선출 직후 탄원 스님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확산에 회의 · 행사 '줄 취소'

불교계 9월 16일까지 대면행사 금지 조치

조계종 원로 회의 25일 연기
교구본사주지協 회의 취소돼
승가고시 등 종단 일정 차질
교계 학술행사 · 축제도 영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9월 16일까지 소속 사찰과 단체에서 대면 법회, 행사, 강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예정됐던 종단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9월 8일 예정됐던 제64차 회의를 오는 9월 25일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제64차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 선출 및 대종사 · 명사 품계 심의 등의 안건을 다룬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으로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또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 전형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특별전형에는 총 21명의 비구 스님들이, 명사 특별전형에는 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추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는 9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8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대면 행사 일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종단 교육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9월 1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5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했다. 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5급 승가고시의 경우 "대상자들이 합숙을 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져 연기가 결정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9월 10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4급~6급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찰회계관리' 교육도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연기됐던 4급 승가고시는 이번에는 예정대로 9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됐다. 고시는 최대한 대면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응시 대상자를 나눴고, 철저한 예방 수칙 안에서 진행됐다.

불교계 학술행사와 축제도 연기 ·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행복바라미 문화 대축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취소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나 좋은날'은 9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축전 본 행사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다만, 상황을 주시하며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지역 문화제만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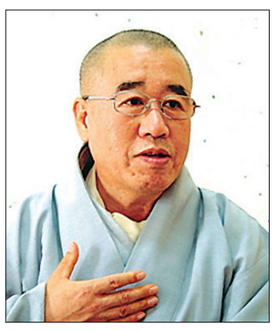
보조사상연구원은 9월 11일 서울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4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종단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대회를 잠정 연기했으며, 10월 9~18일 세종시 영평사의 구절초 축제는 취소됐다.

선학원, '송운 이사장' 체제 개막

법진 스님, 12년 임기 만료
인수인계 여부에 관심 집중
"폐쇄 아닌 소통" 변화 기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임기가 9월 17일 만료되면서, 선학원의 변화 가능성에 불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선 이사장이었던 법진 스님은 성범죄자 이사장이라는 오명으로 선학원의 대외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었을 뿐 아니라, 창건주 · 분원장을 배제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비판에 직면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 체제의 선학원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사진>의 임기는 9월 18일부터 2023년 9월 17일까지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이취임을 공표하기 위한 대외적인 공식행사는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학원은 9월 8일경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에서의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가 12년간 지속된 만큼,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인수인계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뤄지더라도 이사회 및 사무국의 인적 구성 자체가 법진 스님 중심인 상황에서 당분간은 현상 유지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선학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라면 신임 이사장 스님측이 인수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야 하지만 선학원의 현재 구조상 송운 스님의 인수의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사회나 사무국 인적 구성을 볼 때 이사장이 바뀌어도 법진 스님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수인계를 온전히 받는다고 해도 독자적인 행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 체제의 선학원에 대해 과거와 다른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창건주 · 분원장과의 소통으로 꼽힌다. 그동안 선학원이 정관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의 폐쇄성으로 논란을 빚어온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 · 분원장협의회장 자민 스님 역시 송운 스님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관과 내부규정 공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통한 창건주 · 분원장 의견 수렴 △대중공의를 통한 재단 운영방향 정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12년 간 지속된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를 끝내고, 송운 스님을 이사장으로 새롭게 거듭난 선학원이 향후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진 오른쪽>이 9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을 예방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직후 악수를 나누는 모습.

"코로나 방역 앞장선 불교계에 감사"

김제남 수석, 9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밝혀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및 감염예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남 수석은 9월 9알 취임 인사차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찰 등 불교계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는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기하고 연등축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 방역을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방역수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전국 사찰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함에 따라 국내 종교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감염 및 확진자가 전무한데 따른 것이다.

김 수석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서도 불교계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지도 하에 전국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널리 국민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해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당국 역시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특히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를 치유하고 통합해 나가야 할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 관련 확산이 사실상 전무한 것은 전국 사찰과 신도들이 방역지침에 따라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반년 이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전국 사찰에 공을 돌렸다.

특히 원행 스님은 이날 전국 문화재 보유 사찰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온 전문 인력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 급감으로 인해 인건비 충당이 쉽지 않은 사찰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원행 스님은 "전국 사찰이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감수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와 관련한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도 "불교계가 소유한 국가 지정 문화재가 70% 수준이고 조계종 소속 문화재 사찰만 7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 지정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동안 사찰에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감당해 왔지만, 코로

원행 스님 "숱사찰 협조 덕분"
문화재 사찰 국가지원 요구도

나19 사태로 문화재 관람료가 급감하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금곡 스님에 따르면 문화재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의 30%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치하는데, 지난 반년간 사실상 관람료 수입이 끊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님은 "사찰의 어려움은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대신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나아가 차후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치금 부재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수석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국민들의 안전과 희망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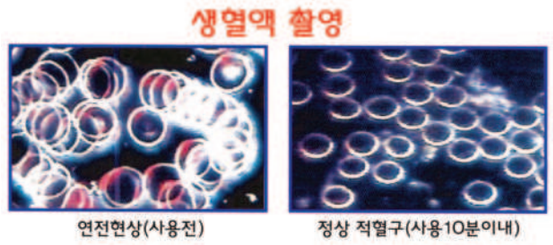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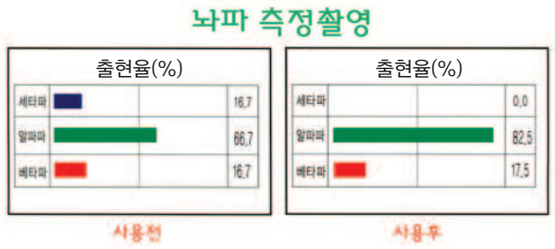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혜암선, ‘한류불교’ 이끌 수행 모델”

혜암진흥회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국제학술대회’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서 진행
혜암선 통해 韓불교 세계화 모색
“혜암 구도정신 세계화 주요 동력”
선사 유품 특별전 ‘빈가보장’ 개최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후학들을 경책했던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선사상과 발자취를 선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9월 5일~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제10대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4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11편의 논문과 24편의 논평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혜암 선사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며 선사의 선사상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학술대회는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종교문명 전환기 불교의 세계화 담론과 혜암사상’을 발표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서구의 종교는 황혼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이유로 서구 사회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 사상을 갈구하고 있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있다“고 현 시대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혜암 선사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요익중생을 위한 자비행은 한국 조사선의 세계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사선 전통을 계승한 혜암선을 통해 ‘한류불교(K-Buddhism)’의 세계화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영상으로 발표한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철학 · 종교학과 교수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혜암 선사의 가르침은 목표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일침을 놓는다. 선불교는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볼 것을 요구한다”면서 “혜암 선사의 삶은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선사의 삶은 그 만큼 철저히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혜암선사문화 진흥회는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부에서는 혜암 선사의 수행론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문을 통해 살펴본 선수행과 견성성불, 선사상의 특성, 혜암 선사의 성격과 표현원리, 실참과 사상의 상관성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황금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선사 혜암은 조계종의 가장 모범적 전통 수행자이며, 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모범적인 간화선 종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혜암 선사의 ‘동중공부(動中工夫, 시끄러운 가운데 선수행)’에 대해 “백장청규의 정신아래 수행과 일이 하나로 이어지는 선가의 수행정신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며 “이는 간화선의 본령이 일상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3부는 혜암 선사의 선사상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중생제도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14년과 2019년에 걸쳐 3번째로 개최됐다.

‘혜암선이 한국선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혜암 선사는 법문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며 “체계적인 법문으로 교육의 경계를 두지 않는 선승이며 승가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헌 종법에 율장의 화합정신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혜암 선사의 삶과 사회에 끼친 영향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 등에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술대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됐으며, 참석하지 못하는 발제자들은 영상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일반 불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해인사TV’와 ‘BBS불교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해인사성보박물관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빈가보장(貧家寶藏) - 가난한 집에 보물’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 해인총림 다주 여연 스님, 해인사성보박물관장 원학 스님을 비롯해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전시회를 통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선사의 유품으로 가난은 무엇이며 참된 보물은 무엇인지 일러주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노사께서 평소 애송하시던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서 ‘몸이 가난한 것이지 어찌 도가 가난한 것이겠는가? 몸으로는 누더기를 걸쳐 입었지만 마음엔 최고의 보물을 가졌다네!라는 구절이 있다”며 “결국 ’ 가난한 집의 보물이란 눈에 포착되는 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혜암 선사의 묵서와 평소 사용하던 장삼, 가사, 안경, 삭도, 친필 원고 등 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마련돼 있다. 전시는 10월 4일 까지다.

한편, ‘혜암 성관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는 9월 19일 오전10시 30분 해인사 대적광전 탑마당 일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불광사 법회 금지 말라” 판결 후폭풍

코로나 방역으로 소강상태서 충돌 예상
파행에 지난해 법화 중단
양측 소송 진행 중 충돌 요소

정부의 방역지침 권고사항 외에 법회 행위 금지를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9월 1일 박홍우 11대 불광사 신도회장 등이 제기한 간접강제신청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스님 등이 원고 측의 법회를 방해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광사는 불광법회 내에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박홍우 11대 불광사 신도회장을 위시한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법회 파행이 이어지자 결국 법회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홍우 11대 신도회장 측은 법회와 법회 준비를 위해 사찰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봉쇄되고 방해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불광사 측은 11대 신도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2대 신도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11대 신도회장 측은 회당단 임명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4월 법원은 지정 스님 측이 개정회칙 준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지정 스님 측도 7월 명등회의 등이 주관한 내부회칙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불광사 측의 법회 중단 선언과 이어진 코로나 기간 방역 준수를 겸한 소강상태는 법회 강행과 금지 등을 둘러싼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노덕현 기자

조금 특별한 동국대 신입생 모집

코로나로 비대면 전형,
출결, 봉사활동은 평가 배제

동국대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신입생들의 엄정한 평가를 위한 신입학 모집요강 변경을 공지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평가기준을 세밀화해 우수인재를 적합하게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동국대는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요강 변경안을 발표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류제출은 방문제출이 불가능하며 우편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면접고사 방식은 당초 유증상자의 비대면 면접을 빼면 대면 면접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전면 비대면 면접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감안해 출결과 봉사활동 등 학생부 비교과 성적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며 논술과 실기전형을



통해서 선발키로 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던 대구지역 학생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일반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기시험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예체능 계열 선발도 일부 변경된다. 먼저 연극학부의 경우 1단계 기초실기 대면평가가 영상으로 대체된다.

스포츠문화학과는 축구와 농구 미니게임을 통해 평가하던 데서 개별 포지션 평가가 진행된다. 스포츠문화학과 실기 지원 자격은 완화된다.

야구부문 투수의 경우 통산 15이닝 이상 자격에서 13이닝 이상으로 자격이 낮아지며 농구부문도 2019년 1월부터 실적기준에서 2018년 3월 실적으로 반영범위가 확대된다. 역량평가도 농구부문은 1개 학년 경기실적에서 2개 대회 경기실적으로 확대 변경되고 야구부문은 타자 최고 점수 타석수를 100타석에서 80타석 이상으로 낮췄다.

동국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형 과정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다양한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 혹은 방식을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대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동국미래교육포럼’도 9월 11일 출범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불교음악상 공모
9월 3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음악원이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한 제5회 불교음악상을 공모한다.

이번 불교음악상 공모는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한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한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봉은사에 위치한 불교음악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인 올해의 불교음악인에는 상금 500만 원, 신인상인 올해의 불교음악신인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은 11월 중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음악원은 제7회 신진 찬불가 작곡 공모도 진행한다. 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수천 년 전 암각화에 '극락왕생'이…

일감 스님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9월 15~21일
신석기 등 암각화 탁본 70점 공개
"알타이 · 한국 암각화 문화 동질성"
상상력 · 불교로 해석한 명상록 발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암각화 탁본, 하늘사슴-몽골 슈베트하이르항.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문자가 없던 그 시절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다. 돌에 새긴 암각화다. 멀게는 약 1만 년 전에 그려진 그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 탁본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일감 스님이 알타이 등에서 직접 떠온 암각화 탁본 7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지상 1층 '하늘'과 지하 1층 '땅'으로 나뉘어 열린다. '하늘'에서는 '태양신'과 '바람신' '하늘마차' '기도하는 사람들' 등 고대인들이 하늘과 신을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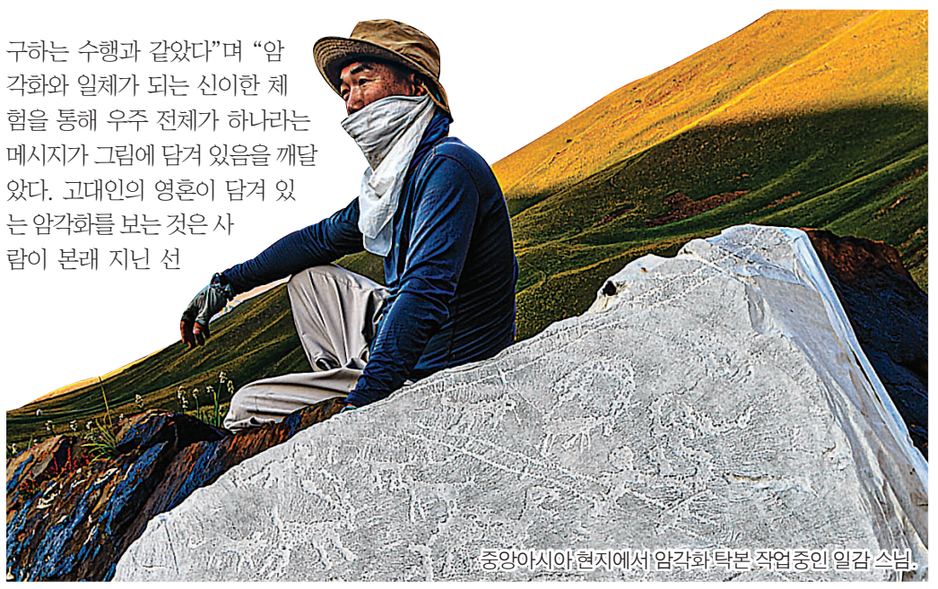
'땅'에서는 인간이 발붙이고 사는 대지이자 생명을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생명' '엄마들' '사냥' '동물' '도구' 등이다. 이들 작품은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낙원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예술이자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일궈낸 '화엄만다라'이기도 하다.

문자가 없던 시대의 고대인들은 바위와 동굴에 그림으로 일상을 기록했다. 암각화다. 구석기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해 청동기시대에 가장 활발했고, 철기시대까지 그려졌다. 사슴, 물고기 등 동물과 사람, 기하학적 무늬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안전한 사냥과 풍부한 먹을거리 등 축복과 안녕 그리고 영원한 행복 등 기원과 주술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암각화는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를 비롯해 유럽, 시베리아, 몽골, 중국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 알타이공화국에 분포하고 있는 알타이 암각화는 한국 암각화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띠고 있다.

일감 스님은 2005년 고령 장기리 암각화를 통해 암각화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 암각화 지역인 러시아 알타이,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을 찾아 탁본과 기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감 스님은 수천 년 전의 암각화에서 오늘날의 인류가 품고 있는 최고의 정신과 마음이 이미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림의 곳곳에서 '불교'를 느꼈다. 아울러 암각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늘' 사상에서 불교의 '극락왕생'을 떠올렸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부처님의 연기(緣起)와 불이(不二), 화엄(華嚴)을 보았다.

일감 스님은 "영하 30도, 텐트를 날려버리는 세찬 바람, 해발 3000m의 고산, 극한의 자연을 뚫고 수만 년 전 고대인들이 남긴 그림의 뜻을 더듬어 보는 일은 마치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궁구하는 수행과 같았다"며 "암각화와 일체가 되는 신이한 체험을 통해 우주 전체가 하나라는 메시지가 그림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고대인의 영혼이 담겨 있는 암각화를 보는 것은 사람이 본래 지닌 선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암각화 탁본 작업중인 일감 스님.

량한 성품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고경(古鏡)을 보는 것과 같다. 그 고경을 가져올 수 없어 탁본으로 담아왔다. 선조 인류의 정신과 영혼을 자유롭게 누비는 여행길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9월 15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일감 스님이 직접 안내하는 전시장 라운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감 스님은 전시에 맞추어 탁본도록과 책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를 출간했다. 암각화 사진과 시, 그리고 짧은 산문으로 구성한 책은 키르기스스탄의 싸이말루이 따쉬 암각화를 중심으로 엮었다. 120여 점의 암각화 사진이 실린 책은 기존의 학술적 접근이 아닌 일감 스님이 상상력과 불교적 가치관을 동원하여 새롭게 해석한 명상록이다.

"암각화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암각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내면에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그저 암각화를 바라봅니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득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암각화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의 떨림과 설렘,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치는 영감과 해설을 적고 있다. 또한 수몰 위기에 처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살리기 위한 일감 스님의 바람도 담겨 있다.

일감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수락산 용굴암 주지로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소임을 맡고 있다. 멕시코 반야보리사 주지 당시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열고, 금산사 템플스테이 '내비둬콘서트'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많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한편, 금강경 읽기 모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는 일에도 진력해왔다.

저서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불교TV 대담집 〈그대로 행복하기〉 등이 있다. 현재, 현대불교신문에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을 연재하고 있다.

이 뭣꼬?

고구마도 더덕도, 도라지도 아니요
감자, 천마, 맥문동, 초석잠, 토란도 아닌데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꼬?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해놓고 오데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났는고?
이 나라 백성들은 하늘의 門을 연다는 호라지좆(天門冬)을 알고나 있을까?

하여, 지금부터 호라지좆(天門冬)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

창설자(林大業)은 호라지좆을 황제로 옹립하고 토종회화열매를 대장군으로 삼고 홍삼, 더덕, 도라지를 우장군으로 임명하고 율무, 감초, 찹쌀 등을 좌장군으로 삼아 우리 인체로 살며시 침투하는 변종바이러스, 미세먼지, 황사, 배기가스, 온실가스, 생활공해, 매연, 흡연, 향연기, 초그을음, 인체접촉병균, 세균들을 파죽지세로 공격하여 초토화시키는 대군단을 창설하였다! (2019年5月)

하여! 감히 우리 인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통방어망을 구축하고 소리없이 스며드는 암살자들을 몰살시킨다!
허나, 이미 적들에게 (기침, 가래, 기관지, 호흡기, 폐질환, 천식, 비염, 후두염, 축농증, 갱년기장애, 면역결핍증, 인후염등) 공격을 받고 있거나, 공격당할 염려가 있는 백성들은 지체말고 황제(天門冬)를 찾아뵙고 하사품을 받으시라!

이 전쟁은 90日 이내 승리로 끝장낼 것이다!
황제와 각 장군들의 능력과 실력, 역할과 임무를 알고 싶다면 지금 곧 인터넷이나 H.P으로 신상정보를 클릭하시라! 시원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皇請訴 : 황제폐하~ 이 나라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는 호열자(虎列剌)놈과 염병(染病)할 년을 추포하여 극형으로 처단해 주시옵소서~

※ 지난 7,8月에 현대불교(100명), 법보신문(100명), 불교신문(100명) 合 300명에게 천문동(체험용)을 무료 보급한 결과 300명 中 217명이 정품구매를 신청하여 배송완료 하였습니다! 구매인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개발자(임대업)은 27年간 기침, 가래, 비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어떤가? 아주 멀쩡하며, 살맛나는 人生을 살고 있습니다(Fact)



180g / 1개월 분
보급가 : 98,000원
(부가세 별도)

구매자 전원 사은품
국산 토종회화열매茶
50~60g
무료 증정



丸妥stick 3g×60포=180g

구매신청+문자 주소 → 010-7159-5737
농협 : 355-0068-7416-53 호산헬시코리아
林大業 010-2255-1358 (직통)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께 마지막 기회!

10月 20日까지 10日분 무료체험!
일반 우표신청 5~7日 소요(배송비 본사 부담)
빠른 배송희망 2日 소요(4000원 본인 부담)

※평소 고마웠던 분들, 소중한 분들, 부모님, 스승, 친지, 도반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우리스님들께 진솔한 마음을 담아 시주하십시오! 하나를 주면 열이 오리라!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해인사, 스님 노후 복지 본격 시작

11월 초부터 '승려주거복지지원사업' 실시

건물 매입해 방사 15개 마련
중덕 이상 재적승에게 제공
수행공동체 위한 복지 확대
국민연금 등 가입지원 나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보종찰 해인사가 스님들의 거주와 노후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해인사는 올해 11월 초 방사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주 방사를 더 확대해 입방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지원해 노후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승려주거복지지원사업' 및 노후복지를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해인사는 스님들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다가오는 11월 초 스님들에게 방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방사는 해인사 소유의 '소리원'과 '조주원'의 방사를 활용했으며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 15명에게 제공된다.

입방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종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입방대상자가 선정되고 소정의 관리비 납부 및 면제가 결정된다.

해인사는 "입방한 스님들은 청규에 의거 생활하며, 가야산 해인사 수행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승단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인사 전경. 해인사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11월 초 해인사 소유 방사를 중덕이상 스님들에게 제공한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해인사의 중심 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 임회 보고를 마쳤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조계종 종단과 국가의 각종 복지제도를 근거로 제정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 지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복지 혜택이다.

해인사에 따르면 "스님들이 주거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종단이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해 승려주거복지지원을 중점으로 방향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지난 해 2019년 10월 24일 임회에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규정'을 선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승려복지 시행을 위해 재적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집중토론을 거친 결과이다.

복지혜택은 해인사 교구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재적승에게 우선 제공된다. 타교구 재적승은 해인사와 교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소임, 재정 등) 스님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은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에게 방사를 제공한다. 방사 제공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방사 제공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거주지원 대상 재적승의 방사 수요를 조사하고 시설마련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인사는 주거복지를 위해 입방 대상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해인초등학교 건물과 합천 가야면 치인리에 위치한 건물 1개를 매입했다. 방사 수요 조사를 실시 후 안정적으로 방사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해인사는 종단의 승려복지제도에 발맞춰 해인사 재적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했다. 그 결과 전국 모든 교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적승이 가입했고 지원금액도 최고로 높다.

2020년 8월 승려복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인사 재적승의 상반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370명이며 지원금은 7천6백8십8만2000원이다.

해인사는 "교구에 소속된 스님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연락하고 승려복지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에도 인재불사 계속된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청소년장학금 보시

초 · 중 · 고 · 대학생 25명
총 1000만원 비대면 전달

1994년 창립된 이후 26년간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활동해 온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탑사 주지)가 9월 5일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진안군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에서 김준호(전주공고2)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10명, 초 · 중 · 고 재학생 15명 등 총 25명의 지역청소년들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장학생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전달됐으며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업무협약에 의한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7번째이다.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용진 진안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주연 센터장,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원봉사자가족과 학생 중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타인에게 나를 낮추며 배려할 수 있는 가르침은 봉사와 나눔에서 실천으로 공부하는 것이다"며 "이웃을 살피고 친구를 도와주고, 홀몸어르신들의 빨래를 하고 맛있는 반찬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재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사태에 이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진안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자원봉사에 힘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격려했다.

장학생을 대표한 김준호 학생은 "누구나 봉사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어려운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해온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봉사선행 학생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마이산탑사는 1994년부터 갑룡장학회를 통해 종교와 상관없이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업우수자들에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3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명상심리상담 입학 모집

접수기간 9월 23일~28일



불안한 현대인에게 명상은 치유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다. 명상심리상담가 양성을 위해 문을 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는 불교를 기반으로 명상과 심리 상담을 연구하는 곳으로 괴로움을 겪는 현대인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23~29일이며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정원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불교추천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이나 종립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상상담심리학과 교육과정은 불교와 명상 그리고 상담으로 나눠 진행된다. 불교관련은 불교상담심리학, 선수행론, 불교와 심신의학 등이며 명상관련은 명상과 스트레스, 명상과 건강심리, 명상과 뇌과학 등이다. 상담관련 과목은 아동청소년 상담, 성격심리학,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이며 명상 실습과 국내외 명상시설 탐방 및 집중수련도 진행된다.

교과목 이수 후 명상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청소년상담기관, 교육기관 상담센터, 소년보호기관, 교도소, 재활원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 가능하다.

안양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은 "명상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서양 심리 상담 이론도 배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054)770-239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례 수재민 위한 자비의 손길 이어져

화엄사 · 정광학원 · 반야회 · 굿월드 등 기금 소독제 등 전달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수재민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종립학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과 화엄사는 지난 8월 29일 구례군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한 의류용품 3,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정광학원 영일 스님, 이동배 교법사와 교직원, 학생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엄사와 정광학원은 8월 29일 구례군청에서 수재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구례지역은 섬진강의 범람과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거지와 농경작지가 대부분 피해를 입어 3주일 넘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덕문 스님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이다. 어려운 수재민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만덕사 반야회(회장 유진숙)도 8월에 이어 9월 10일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방문해 수재민을 위한 밑반찬 120세트를 전달했다. 재해 복구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든 수재민의 반찬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반야회 회원들이 3일에 걸쳐 만든 반찬 5종류를 각각 용기에 담아 120개 만들어 이날 전달한 것이다.

한편 불교어린이 구호단체 (사)굿월드 자선은행(대표 덕문)과 화엄사는 9월 9일 구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불정사, 나눔으로 백중기도 회향

백미 1000kg 및 성금 500만 원 전달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백중기도를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천불정사는 9월 4일 부산 금정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천불정사는 성금 500만 원과 쌀 20kg 50포 총 1000kg을 전달했다. 성금과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소외 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금은 백중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보시금과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천불정사는 49일 동안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백중기도를 봉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불정사 범성 법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한 백중기도였지만 신도님들이 마음을 더욱 더 모아 주신 것 같다"며 "그 결과를 오늘 전달하고 회향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수해 복구 지원금 전달

십시일반 모금 활동으로 성금 555만 원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불자 및 시민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은 9월 4일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쌍계사 설선당과 템플스테이관 및 하동군청에서 개최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은 9월 4일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쌍계사 설선당과 템플스테이관 및 하동군청에서 개최했다.

성금은 총 555만 원으로 경남 포교사단들이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펼쳐 마련한 후원금이다. 성금은 하동군청 수재민을 위한 성금 150만 원, 하미자 경남포교사에게 230만 원이 전달됐다. 하미자 포교사는 경남지역단 서부총괄 심우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중 호우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계사에 198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제공했다. 경남포교사단 지도사찰인 쌍계사 교육관이 긴 장마와 폭우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경남포교사단이 나섰다.

박해덕 단장은 "코로나 사태와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함께 마음을 내 동참해 주신 포교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여원, 수해지원금 1000만원 지원

9월 8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재단법인 진여원이 폭우와 긴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을 위한 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신뇨엔 · 이사 정경)이 9월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수재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정경 국원, 창훈 국원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진여원 상무이사 정경 국원은 "성금을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사찰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의 한숨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어려움이 많은 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찰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한 신뇨엔을 근간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다. 신뇨엔의 '신뇨'는 '진여(眞如)'를 의미하며 대반열반경(소의경), 전등법맥(재가출가), 신통영묘(접심수행)를 근본으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불 논단

교육, 불교의 미래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젊은 출 · 재가자 찾기 어려워
코로나에 '청년 감소' 도외시
저출산 · 고령화 탓만 해서야

조선 초 · 중기 불교 최대 위기
새로운 경제 · 포교 방법 구현
서산 대사, 교육 체계 정비해

위기를 기회를 만든 건 '교육'
교육 통해 젊은 불자 양성해야

젊은 출가자와 젊은 불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불교계의 화두가 된 지 벌써 오래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을 불문하고 그러한 위기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눈앞에 그리고 바로 지금 닥쳐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이기에, 우리 불교계도 역시 그 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다. 거대하고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닥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은 논외가 되고 마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우울한 현실이다. 그 우울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과제였던 청년 불자, 청년 출가자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어느 순간 도외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에 있고 게다가 입시철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필자에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위기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보다는 오히려 인구절벽이 초래한 위기이고, 청년 불자의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대의 예언은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불교계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청년의 감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고 청년 불자, 청년 출가자의 감소 역시 대세라고 순응하고 마는 것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20년 동안 초저출산,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거기에 코로나19까지도 엎친 데 덮치는 악재이기에 불교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간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사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가 최악의 위기라고 말해야 할 그런 시대였다. 청년 승려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승려'라는 신분 자체의 유지가 쉽지 않았던 시대가 성종부터 선조 때까지의 120여 년이었다. 불교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기를 당시의 스님들은 어렵지만 극복해냈다.

사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사찰의 유지 전승을 위한 갑계(甲契)의 결성이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찰연기설화의 유포나 불교가사를 통한 전법 활동의 확대 역시 사찰과 승가의 유지와 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새로운 포교방식이었다.

서산 대사 이후의 조선 승가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제력의 대부분을 사찰의 유지보수와 승려교육이라는 두 부문에 집중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 대사를 기점으로 약 100년 동안 조선불교는 승가교육을 위한 공부 체계를 재정비하였고, 그것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출중한 승려를 배출하는 연결통로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피폐함과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현실을 뚫고서 다시 한번 불교 재도약을 이끌어낸 면면한 힘은 결국 승가와 사원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 모색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승가교육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과 새로운 활로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은 조선시대에서 불교가 명맥을 끊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견뎌내게 하는 새로운 힘이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색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승가교육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젊은 불자를 키우는 것의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보증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노력은 아직도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교육 일선에 있는 불자의 한 명으로서 젊은 불자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게 여겨지는 이 맘때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사성제 교법으로 설법하라

구도자 싯다르타가 '네 가지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사성제)'를 깨달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생을 위하여 최초로 설법을 하였다. 〈잡아함경〉15와 〈남전 상응부경전〉56에 나오는 '태양의 비유(日喩)'에는 "'사성제'의 진리를 사실대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깨달음(正覺)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녹야원에 계시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징조를 보인다. 그와 같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도 먼저 깨달음이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첫째, 현실세계의 존재 자체가 한계적 상황으로 괴로움의 세계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진리(고성제)이고, 둘째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탐욕에 대한 집착(애착)인 것을 밝힌 진리(집성제)이고, 셋째는 애착을 소멸한 것이 괴로움이 소멸하여 마음이 평화로운 열반의 세계임을 밝힌 진리(멸성제)이고, 넷째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여덟 가지 올바른 길(팔정도 · 중도)임을 밝힌 진리(도성제)이다."

불교의 목표는 이고득락(離苦得樂) ·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여 행복함을 얻는 것이고(초기불교), 나아가 이웃의 괴로움을 없애주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대승불교). 싯다르타가 출가한 동기와 목표는 삶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이다. 불교의 화두는 '괴로움(苦)'이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으로 불교 교법의 핵심이다. 사성제에서 밝힌 괴로움에 대하여 인과로 설명하는 논리구조가 연기법이다. 법사는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법해야 한다. 초기불교경전인 〈맛지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에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온다. 그와 같이 불교의 모든 교법이 사성제에 포함된다"고 설하고 있다.

법사는 불교의 기본교설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 삼법인 등을 먼저 숙지하고 설법을 해야 한다. 기본 교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승경전이나 선종의 조사어록을 설법할 수가 없다. 끊임없는 경전 연구와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 법사의 생명이다.

부처님께서 초전설법에서 설한 근본불교 교설에 어긋나는 설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단이다. 법사는 설법할 때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갈등 문제를 절대자인 신의 형이상학적인 권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조국사 지눌이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긴 괴로움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관찰하고, 항상 내 마음을 성찰하여 지혜를 얻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초기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관찰과 성찰, 알아차림)의 수행법이다. 불교가 신통력과 기적을 자랑하는 신비주의나 허공의 꽃을 쫓아다니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선지식 가르침 계승 · 발전해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 된다." 봉암사 결사의 주역 중 한명인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가 남긴 유명한 사자후다. 오로지 대오견성을 위해 죽을 각오로 공부하라는 선지식의 당부이자 경책일 것이다.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은 혜암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들이 9월 중 잇달아 열린다. 가장 먼저 열린 행사는 9월 5일~6일 개최됐던 '제10대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4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살펴보는 11편의 논문과 24편의 논평이 발표됐다.

참석 학자들은 "조사선 전통을 계승한 '혜암선'은 한류불교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목표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일침을 놓는 경책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들은 그만큼 철저히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자세로 혜암 스님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혜암 스님은 평생을 수행 정진하며 살았지만, 종단의 위기 상황에서는 분연히 일어나 산문 밖으로 나왔다. 이판과 사판의 경계를 두지 않은 선승의 모습에서는 종헌종법과 율장의 화합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선지식을 선양하는 행사들은 최근 많이 열린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후학들이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양이자 계승이다.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모으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확진에 이은 사망과 같은 물리적인 상처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의 책임공방, 그리고 확산 후 경제위기로 인한 갈등 촉발과 이념갈등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우울증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칭한다. 하지만 진정한 코로나 블루는 사회갈등 증폭에 따른 공동체의 훼손에 기인한 개인들의 실망감이 아닐까.

9월 21일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열리는 '2020 Be the peace'(이하 비더피스)는 진정한 코로나 블루 치유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게 한다. 평화란 무엇일까. 사회 갈등이 잦아들고 모두가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화가 아닐까.

코로나가 창궐했던 4월과 5월 우리나라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 개개인이 방역에 참여하고 의료진들을 응원했다. 그로부터 4개월, 이젠 의료정책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비더피스 명상대회에서는 모두가 마스크와 하얀 옷을 착용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 대한 표시다.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 만큼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나된 마음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명상대회를 통해 수행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 치유라는 진정한 코로나 극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신, 치료제 개발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더피스 사람들의 꾸준한 마음모으기 사업을 응원하며 이번 2020비더피스에 대한 많은 불자들의 활발발한 참여를 당부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8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0년 9월 9일(수) ~ 10월 20일(화)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교수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0년 12월 20일(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9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한마음연구』 제5집 발행

『한마음연구』는 대행선 및 불교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물을 담아
대행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 불교학술 논문집이다.

- 『한마음 연구』 RISS 검색 서비스 지원
- 발행 주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한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한 주제
- 투고 자격
  - 박사과정이상의 선학, 불교학과 또는 관련된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6월 30일, 12월 31일 마감)
- 문의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 470-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9~9/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3	요가디피카 (아행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보리수 아래 : 동화로 만나는 부처님 이야기 대보라홈긴쏜 / 김미선		불광출판사
5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7	방거사 어록 시 역주 (선어록총서 3)	강승욱	운주사
8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광륵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글과 그림이 된 '깨달음'



그대는 늘 새롭으이

글 · 벽봉 / 삽화 · 백화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 2만 원



소식

벽봉 지음 / 맑은소리맑은나라 / 1만8천 원

40여 년 선방 수좌 벽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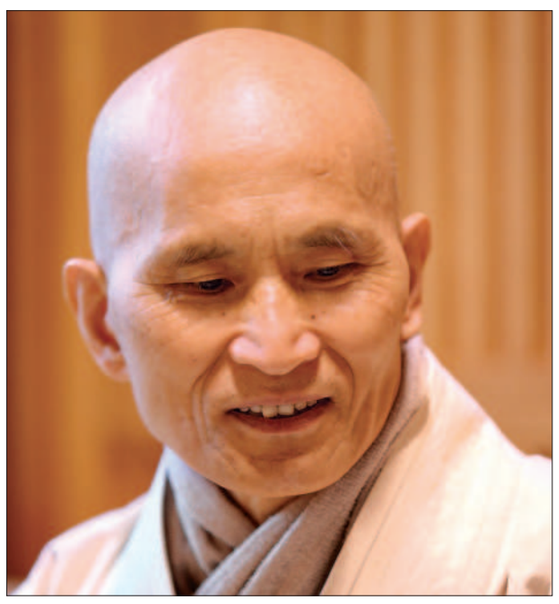
선 수행 지침서, 선서화집 출간

수행으로 얻은 것 글 · 그림으로

實參實修에 의한 수행 지침서

고뇌의 현대인에게 해소법 제시

'윤회' 등 선서화 100여 점 수록



저자 벽봉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도// 가까운 곳에 / 도가 없다면 / 저 먼 곳에도 / 도가 없으리."

"행복// 이 사바세계에서 / 행복이 없다면 / 저 극락세계에도 / 행복이 없으리."

말이 되고 글이 된 후에는 쉬운 이야기이지만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없는 말과 글이다. 찾아나서는 일이 전부인 수행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리다. 수좌 벽봉 스님이 오랜 수행에서 얻은 것들을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와 선서화집 〈소식(消息)〉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적은 짧은 글과 선적인 삽화로 구성된 〈그대는 늘 새롭으이〉에는 선객의 살림살이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

오랜 시간 수좌로 선방을 지킨 수좌에게도 '부처님'은 최상의 존재이다. 책은 제1장 '부처님'에서 무시이래 그 거룩한 존재로부터 시작된 불법이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롯한 지침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고귀한 분, 항상하는 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 즐거움이 충만한 분, 행복이 그득한 분, 중생이 원하면 모든 걸 통째로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제2장과 3장, 4장 '깨달음의 노래'에서는 번뇌, 윤회, 스승, 만행, 공양, 해탈, 극락세계, 정(定)과 혜(慧), 허공, 고향 등 수행의 여정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을 핵심 주제어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겪어봄직한 화두로서 승가에는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한다. 특히 12편으로 정리된 허공과 고향을 시인 문태준은 서평을 통해 "벽봉 스님의 시는 구도의 노래이다. 또한 시상의 오고감이 자유롭다. 스님께서 쓰신 한 편의 시는 흐르는 물소리요, 갇히지 않는 바람이다. 시를 읽고 나면 마음에 연꽃 한 송이가 핀 것 같다. 그리하여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한다. 실로 '법의 고향'에 들어서게 한다. 더불어 '허공' 연작시는 선기가 돌올하고 시구가 활구 같다. 감흥에 크게 움직일 것이다."고 했다.

제5장 '수행에 들어가는 장'에서는 수행지침서라는 언어가 아깝지 않을 수행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부록 형태로 꾸려진 제5장은 '수행의 방법',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점차적인 수행(명상과 지혜)'으로 구성됐다.



벽봉 스님 作, 정진

'점차적인 수행'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절 명상, 좌선 명상, 조깅 명상, 화에 대한 명상, 안정을 찾는 명상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두려움, 무관심, 열등감, 시기 질투, 타인을 무시하는 습관, 이중적 마음으로 힘들 때 등 고뇌의 현대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해소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참실수(實參實修)에 의한 지침서라는 데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책의 마지막 귀결은 '간화선'이다. 간화선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을 제시하는 수행법임을 강조한다.

이번 '선 수행 지침서'에는 각 수행 주제에 맞는 백화 화백의 삽화가 들어 있다. 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삽화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글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삽화들은 글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진리에 이르게 한다.

선서화집 〈소식〉에서는 승가의 결제와 해제, 그리고 입선과 방선의 간극을 갖가지 그림과 활구로 풀어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에게 일침을 준다.

총 108쪽 분량으로 행복한 사람, 달에서 본 지구, 취모리 검, 방하착, 본래무일물, 윤회와 열반, 우주, 정진 등 100여 편의 선서화를 담았다.

거친 달 표면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푸른 별 지구를 검은 허공 속에서 드러나게 펼쳐놓은 그림 '달에서 본 지구'와 총천연색의 파도와 배를 그려 넣은 '정진'은 이번 선서화에서 특히 눈에 띈다.

영일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그가 빚어낸 이번 선서화는 산철마다 결제철의 공부를 옮겨 정리한 '점검'의 기록인 셈이다. 벽봉 수좌는 언제나 주(主)가 수행이며, 부(副) 역시 수행인 철저한 수행자로서 방편이 아닌 친절한 부연(敷衍)을 이번 선서화를 통해 설명해 놓은 참고서라고 보면 옳을 것이다"고 밝혔다.

벽봉 스님은 선서화집 〈소식〉을 통해 '허공에 던지는 도담(道談)'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며 이는 "결제철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산철이면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어 허공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더는 수행의 결실이 있다면 모두 공부인들을 위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으며 그 보다 더 비중을 둔 것이라면 '내 점검을 해야 했다'"고 작품의 취지와 의미을 밝혔다.

벽봉 스님은 9월 2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와 〈소식〉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한 전시도 연다.

저자 벽봉 스님은 4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선방 수좌로 살아왔으면서도 넘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수좌라고 불린다.

스님은 이번 단행본을 통해 "그간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축낸 밥값을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산철마다 조금씩 정리를 했다. 부족하나마 후배스님들과 수행을 지어가고자 하는 재가수행자들에게 '조금 먼저 이 길을 만난' 수행자가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스승님과 선배, 도반스님들께는 넘치지 않을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기에 이 책이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며 출간 취지를 밝혔다.

벽봉 스님은 쌍계사 금당선원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대흥사, 직지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봉선사 보림선원에서 참선 정진 중이다.

제2기 (2020년)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접수 : 2020. 10. 5 ~ 10. 30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2기(2020년)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를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분야

1)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 번역서(①, ② 중 선택) : ① 진흥원 제시 도서(www.kbpf.org에서 다운로드), ② 본인 선정 도서

2) 불교 콘텐츠 부문 -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 공모 주제 :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 지원금

①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 500만원 ~ 1,500만원, 번역서 : 300만원 ~ 1,200만원(분량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② 불교 콘텐츠 부문 -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 300만원 ~ 1,5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간단 이력서 1부(자유 양식)

③ 제안서(A4 1p 분량, 자유 양식)

④ 불교 학술 부문 중, 번역서 지원자는 추가로 해당 도서의 서지상 정보, 목차, 샘플 번역 3쪽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 분량을 추정(200자 원고지 기준)해서 제출해야 함(* 지원자가 해당 도서의 판권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판권 취득을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1차(예비 심사) 통과자는 제안서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1차 통과자에게 개별 통보함).

2) 심사 절차

1차(제안서 심사) → 2차(1차 통과자, 세부 계획서 심사) → 3차(종합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선정자는 연구비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결과물이 본원 출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정한 출판사에서 총서로 발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3) 접수

기간 : 2020년 10월 5일(월) ~ 10월 30일(금)까지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11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대형사찰 시설비의 1/10 정도

의 시설비이지만 대형사찰 법당 현장서 본 견본과 염불소리 비교시 장난감!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면 질병! 내 귀에 내 염불의 신명은 건강!

스님 세계에 깊게 베인 속단의 습관을 버리시고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앰프다루기 1초,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여성 출가자 인권신장’ 이끈 미얀마 스님

미얀마 셰얄레이 케투밀라 스님

비구니 계맥 단절된 미얀마
열악한 불교 여성인권 직시
20년 이상 인권운동에 매진
“인정과 존중” 요구해 주목

김민재 객원기자

여성 출가자는 인정해도 비구니나 사미니를 인정하지 않는 남방불교권에서 여성 출가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출가자가 있다. 지난 9월 5일 일본 영자신문 ‘재팬 타임즈’는 미얀마의 여성 출가자 셰얄레이 케투말라의 활동을 보도했다.

남아선호사상과 비구승단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얀마 사회에서 셰얄레이 케투말라의 존재는 특별하다. 셰얄레이(Sayalay)란 비구니 계맥이 단절된 미얀마 승가에서 재가여성이 집을 떠나 수행정진에 힘쓰는 여성출가자를 이른다. 올해로 세수 40세의 셰얄레이 케투말라는 10대 시절, 결혼과 자녀라는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해 20년 이상을 여성인권 신장에 힘쓰고 있다.

케투말라는 “미얀마에서 남성 출가자는 불교 부흥에 힘쓴다며 박수갈채를 받지만, 여성 출가자는 항상 천대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미얀마의 셰얄레이들은 현재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나 공식적인 집계나 조사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셰얄레이들은 율장에 적합한 출가자가 아니기에 삭발을 하더라도 가사를 수할 수 없으며, 분홍색 원피스에 가사 색깔과 비슷한 어깨띠를 두른 복장을 입는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케투말라는 미얀마 불교계가 여성출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길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스스로는 스리랑카에 유학, 201년에 2개의 불교학 학위를 취득했다. 케투말라는 귀국 후 셰얄레이와 여성불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우로 재단의 대표를 맡을 수 없었으며, 끝내 재단경영권을 장악한 비구승단에 의해 총비서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케투말라는 “미얀마에서 여성출가자들이 비구스님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희망은 사실상 없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얀마와 동남아시아에서 비구니가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계맥이 끊인지 천년도 넘었기에 부활시킬 방법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성 출가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 만명의 여성 출가자를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셰얄레이 케투말라 스님(가운데). 사진 출처=재팬타임즈

2016년부터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케투말라는 젊은 셰얄레이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4,800개 이상의 불교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현재는 불교적 리더십과 경영을 교육하는 단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케투말라는 “변화를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들기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 ‘협력자’와 ‘동료’를 찾는 것”이라며 자신을 내보였다. 보수적인 미얀마 불교계에서 케투말라의 투쟁은 현대 미얀마 여성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근현대 印·日 이은 불화 복원 착수

근현대 일본불화 대가
노우스 코세츠 특별전
복원기금의 마련 목적


다카마츠 현립박물관에 전시중인 노우스의 작품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불화의 거장으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도불교와 일본불교의 가교가 됐던 거장 노우스 코세츠 화백의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렸다. 화백의 고향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인도에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복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이다. 9월 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다카마츠(高松)시에서 열린 특별전의 모습을 보도했다.

근현대 일본의 화가인 노우스 코세츠(1885-1973) 화백은 일반적으로 지명도 있는 화가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불교미술사에서는 한 획을 그은 화가로 미술계에 알려져 있다. 불교적인 배경속에 자라난 노우스는 항상 일본예술의 어머니는 인도불교미술이라고 생각했고, 1917년 32세의 나이로 인도의 불교미술을 답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1931년, 인도의 불교성지들을 부흥하기 위해 세워진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협회(대보리회)’가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녹야원)에 사찰을 건립했다. 법당의 내부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리기로 결정하고 당시 불교국가로서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의 불교계에 벽화를 그릴 화가를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발된 노우스는 자금부족과 풍토병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1932년부터 5년에 걸쳐 벽화를 그렸다. 사르나트의 불교사원으로 전세계의 순례자들이 찾는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mulagandha kuti vihar)’의 법당에 22개의 장면으로 그려진 불전도는 전체 길이 44m, 높이 4,3m로, 일본화 기법과 인도불교 고유의 디자인이 혼합된 독특한 화풍을 자랑한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그림은 노우스가 당시 벽화를 그리기 앞서 그렸던 1:1 크기의 밑그림으로, 사르나트의 벽화가 완성된 후 귀국한 그가 조동종의 대본산인 에이헤이지(永平寺)에 봉헌한 것이다. 에이헤이지 측은 이번 전시를 위해 보관 중인 모든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은 인도에 남아있는 원본 벽화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진정시킬 ‘대불’ 조성된다

스마데라, 9월 4일 고불법회
日스님과 예술가들 중심으로
기금 모연 위해 전국 권선도


‘코로나 대불’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권진불상’에 코로나로 중지된 이벤트의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힘으로 이를 진정시키고자 대불을 조성하기로 발원한 스님들이 있다. 9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 대불’ 조성을 위해 전국 권선을 나서는 스님들을 소개했다.

9월 4일 오전 고베시에 소재한 천년고찰인 스마데라(須磨寺)의 호마당에서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의 고불법회가 봉행됐다. 코로나 대불의 조성을 발원한 스님은 조동종의 카자마 텐신스님. 현대미술가이기도 한 스님은 “일본은 물론,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천재지변과 유행병이 돌 때 나라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대불을 조성했다”며 발원의 계기를 말했다. 스님은 “지금이야 말로 현대의 대불을 조성할 때”라고 역설했다.

스님이 소속된 예술단체 ‘져먼플렉스 에어라인’의 마에다 신지 대표도 “밝은 마음으로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현재의 상황을 미래에 메시지로 전할 상징이 필요하다”며 대불 조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불사와는 다르게 진행과 함께 조성계획이 정해질 예정이다. 모금과 권선법회 등을 통해 대불의 크기, 재질, 조성방법, 설치장소가 정해진다. 모금은 권선법회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일 예정이다.

지난 5~6월 사이에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금된 385만엔(한화 약 4천 3백만원)은 전국 권선법회를 위한 캐러밴 차량과 권선을 위한 ‘권진불상(勸進佛像)’을 조성하는 데 사용됐다. 텐신 스님은 “캐러밴 차량에 부처님을 모시며 전국을 도는 데에는 부처님께서 평생 유행하시며 중생들의 아픔을 돌보신 데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 역시 “몇 사람의 부자가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조성하는 공덕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용한 것”이라며 “현대의 새로운 탁발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스님은 10월부터 다시 진행되는 2차 크라우드 펀딩에서 달성 금액들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에서 가능한 대불의 소재와 크기, 조성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차 펀딩부터는 해외 펀딩 플랫폼을 이용, 해외로부터의 보시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의 상징은 권진불상이다. 텐신 스님이 현대예술을 적용해 조성한 권진불상은 1m 가량의 높이로, 불상의 몸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문기사와 개최가 취소된 공연의 포스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인쇄물들이 붙여졌다.

전국권선은 오는 11월 홋카이도에서 회향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코로나의 확산상황 등의 추이에 따라 변경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의학 ‘쏘와릭빠’ 정통성 논란

사실상 印 · 中간 분쟁 일환
中정부가 중의학 일부 주장


‘쏘와릭빠’의 체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티베트 스님. 사진 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2,500년의 역사를 가진 티베트 불교의학 ‘쏘와릭빠’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권리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쏘와릭빠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분쟁을 보도했다.

쏘와릭빠는 티베트어로 ‘치유의 과학’이란 뜻이며, 불교철학에 기반을 둔 불교의학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쏘와릭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모습으로 나투어 설법하신 가르침이라고 믿는다. 실제 모든 의학서의 내용과 처방은 사구게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불교의학인 만큼 병의 근원엔 마음속의 번뇌가 있다고 보아 치료요법으로 명상이나 기도가 처방되기도 한다.

지난 해 인도는 ‘쏘와릭빠’가 인도의 무형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쏘와릭빠는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일부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분쟁의 핵심에는 불교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 영유권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측은 “티베트 자치구내에서 전해진 장의학(藏醫學)은 중의학의 한 갈래이며, 이것이 인도북부와 네팔 등의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측의 의견은 단호하다. 인도 국립 쏘와릭빠 연구소의 파드마 구메트 박사는 “유네스코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영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쏘와릭빠가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근간해 8세기 경 티베트로 전해졌음을 티베트 불교에 전해지는 수많은 문헌에서 찾았으며, 이미 유네스코에 증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ngsunsa.net
봉선사
수행연금 조성을 위한
“승보공양僧寶供養에 동참합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부평리)
전화 : 031-527-1956, 팩스 : 031-527-1958
봉선사 ‘승보공양’은 봉선사교구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함이며, 부처님 재세시 부터 전해져온 불교전통의 ‘승보공양’을 현대에 구현한 ‘공양’이요, 복짓는 수행입니다.
승보공양 동참방법
- CMS 동참 : 교구내 사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계좌자동이체 :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신청
동참계좌 : 우리은행 1006-001-53406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승려복지회
승보공양 동참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복지국
전화 : 031-527-1956 팩스 : 031-527-1958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승려복지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전화 : 031-527-1956 / 팩스 : 031-527-1958
봉선사 수행연금 신청안내
제25교구 봉선사승려복지회에서는 봉선사 수행연금을 지급하기 앞서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한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봉선사교구에 수행하는 재적.재직.문도 스님으로 법계3급 이상 결계를 필한 스님. 단, 미등록사찰,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제외
신청기한 : ~2020년 10월 15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승려증사본, 통장사본
*신청서는 방문작성 또는 봉선사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급개시 : 2020년 10월 25일~ 매월25일
신청문의 : 전화 031-527-1956, 팩스 031-527-1958 010-7357-1958 봉선사 복지국

天王 제석천, '신중도'로 들어가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⑱ 제석천 관련 도상들

지난 연재에는 불교의 수호신들을 그린 '신중도(神衆圖)'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날개 달린 투구를 쓴 위태천(韋馱天)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위태천의 기원을 인도 전통의 전쟁의 신 '스칸다'에서 찾았었는데, 그렇다면 불교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호법신들 중에서 다른 종교나 문화권에서 차용되어 불교에 자리 잡은 신이 또 있을까 궁금해진다.

'신중도'에서 위태천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신이 제석천과 범천이라 할 수 있다. 제석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本生譚, Jataka)'부터 싯다르타로서의 생애를 이야기한 불전(佛傳)까지 자주 등장을 하는 신이다. 이처럼 불교의 초창기부터 존재하던 제석천은 어디에서 기원 했을까?

제석천(帝釋天, Sakka)은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기원인 인드라(Indra)가 가진 전설과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신들이 거주하는 하늘나라의 왕 인드라는 전형적인 아리아인의 신으로서 무기는 천둥과 번개이며, 후에 불교·힌두교·자이나교에 차용되어 중요한 신으로 자리 잡는다. 불교에서 인드라는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아수라(阿修羅)의 군대를 정벌하는데, 이 그물을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고 칭하며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연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석천이 불교 경전에 등장한 이른 사례를 찾아보면 팔리어 경전인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에 등장한다. 그 내용은 제석천은 전생에 마가(Magha)라는 인물로서 선업과 공덕을 쌓은 인연으로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한 33명의 청년들과 제석천이 도리천의 33천을 이룬다고 한다. 또한 우리에게도 친숙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의 하나인 '시비왕본생(尸毘王本生)'에서는 시비왕의 보시를 시험하는 매로 등장을 하기도 한다.

아리아인의 신 인드라가 아닌 불교미술에서 호법신 제석천으로 표현된 시기는 무불상 시기인 기원전 1세기경부터이다. 현존 유물로서 제석천이 불교미술에 표현된 가장 이른 사례는 '제석굴 설법(Indra′s visit to the Indrasaila cave)' 또는 '제석천의 방문'으로 알려진 불전의 내용을 표현한 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팔리어 대장경 〈사카판하수타(Sakkapanhasutta)〉와 이에 상응하는 한역 경전 〈장아함경(長阿含經)〉, 〈중아함경(中阿含經)〉, 〈제석소문경(帝釋所問經)〉, 〈잡보장경(雜寶藏經)〉, 산스크리트어본 단편 등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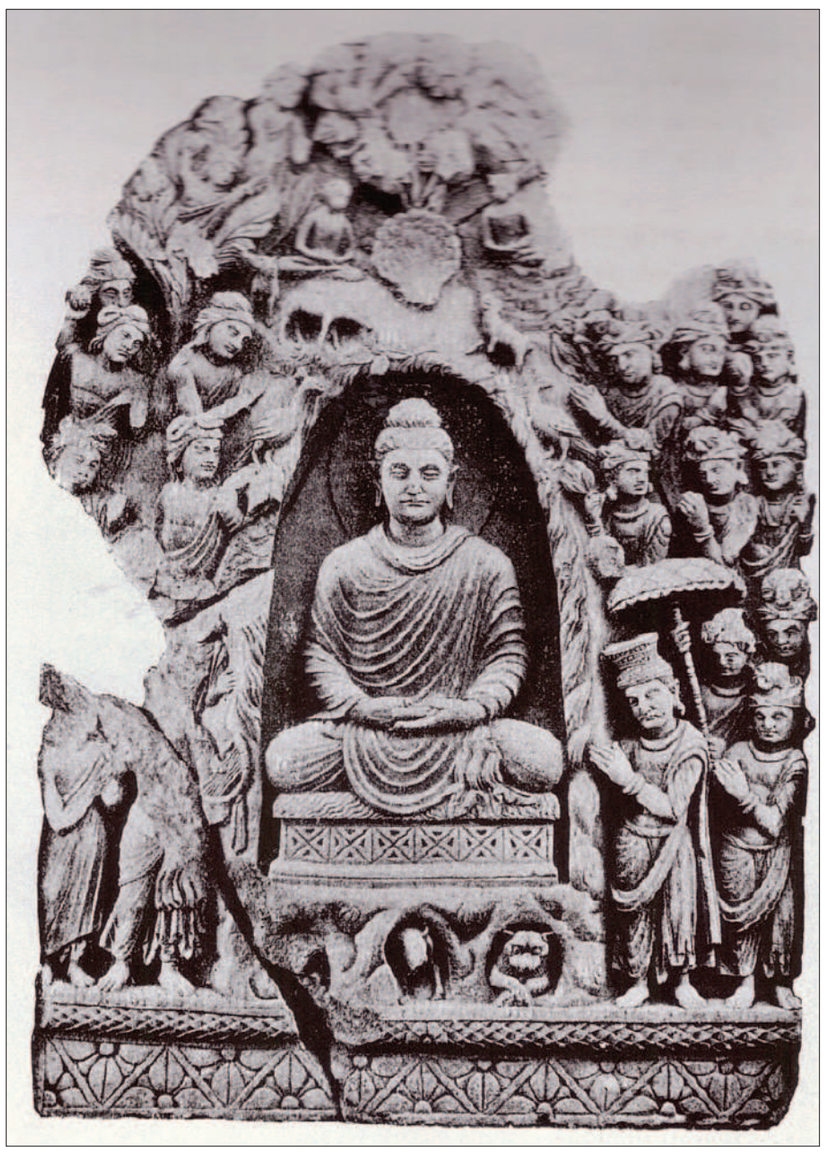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암바산다(Ambasanda)의 바라문 마을 북쪽에 있는 인다살라 굴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이 동굴에 머물고 계실 때 제석천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몇 가지 전조가 나타났다. 이에 불안을 느낀 제석천이 부처님을 뵙고자, 건달바의 아들이자 음악의 신 판차시카(Pancasikhā, 般遮翼)로 하여금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불교 대표하는 호법신장 '제석천'
아리아人의 신 '인드라'에 기원해
'디가 니까야' '본생담' 등서 등장
왕후·여신 모습 14세기 後 형성

제석천의 명령을 받은 판차시카는 벨루와나판두(Veluvapandu)라는 하프를 연주하며 부처님과 교법, 승단과 기쁨을 주제로 하는 음악을 연주하였다.

판차시카의 연주가 끝나자 부처님께 천신들의 방문을 허락받은 인드라와 판차시카를 비롯한 다른 33천의 천신들이 제석굴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 제석굴은 많은 신들을 수용할 만큼 큰 공간이 아니었지만, 제석천과 그 일행이 들어서자 동굴은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커졌고 깜깜한 동굴 내부도 천신들이 내뿜는 빛과 부처님의 광채로 환해졌다고 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석천은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다시 젊은 제석천으로 태어났다.'

위 경전의 내용을 묘사한 조각과 벽화가 기원전 1세기경의 바르후트 스투파에서부터 기원후 1세기경의 산치 스투파, 2세기 마투라 지역 등을 거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6세기까지 유행하였다.



캘커타 뮤지엄에 소장된 '제석굴 설법'. 3세기에 조성됐으며, 파키스탄 로리안 탕가이서 출토됐다. 부처님 오른쪽에 합장하고 있는 신장이 제석천이다.



일본 쇼타쿠인에 소장된 고려불화 〈제석천도〉. 14세기에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왕후와 같은 화려한 복식으로 제석천 신앙의 정착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로리안 탕가이(Lioryian Tangai)에서 출토된 3세기의 '제석굴 설법'은 경전의 내용과 더불어 불교 초기의 제석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중앙에 동굴 속에 선정에 든 부처님께서 가부좌한 모습이 보이며, 동굴 외부는 화염으로 부처님의 빛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좌측에는 하프를 손에 든 판차시카와 오른쪽에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부처님께 경배를 올리는 제석천이 서 있다. 여기에서의 제석천은 아리아인의 신 인드라와 비슷한 높은 모자와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어, 불교에 차용된 초기에는 남성적인 인드라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묘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왕후나 여신의 모습을 한 제석천은 언제 어디에서 형성된 것일까? 중국의 경우 제석천과 관련된 불화는 원대(元代, 1271~1368) 이전의 작품이 현존하지 않아서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수륙재(水陸齋)를 지내기 위해 제작한 수륙화(水陸畵)에 시녀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는 왕후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마도 중국에 들어와 신중으로서 자리 잡은 제석천은 본생과 불전에 묘사되었던 인드라의 모습은 버리고, 신중으로서 적합한 복식을 갖추어 신앙의 대상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14세기 초반에 그려진 일본 쇼타쿠인(聖澤院) 소장 '제석천도'는 용머리가 장식된 대좌에 앉아 왕후 혹은 귀부인과 같은 복식과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부채를 들고 있다. 제석천이 들고 있는 부채를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암벽 위에 집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제석천이 산다는 선견성(善見城)과 수미산(須彌山)을 표현한 것으로 이미 제석천 도상이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고려에서 제석천 신앙이 구체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석천 신앙은 신라 화엄사의 승려 홍경(洪慶)이 태조 11년 928년에 대장경의 일부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이를 제석원(帝釋院)에 두고 제석도량(帝釋道場)을 열면서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더 발전하여 궁중에서 더 자주 제석도량이 행해졌다고 한다. 고려의 제석도량은 천신인 제석의 권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무병장수의 기복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이후 거란의 침입으로 호국안민의 기원까지 더해진 제석 신앙은 더 많은 제석천 그림과 상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요구로 제작된 것이 14세기 쇼타쿠인과 정가당문고미술관(靜嘉堂文庫美術館) 소장의 '제석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제석천도'는 조선시대 제석천 도상의 기반이 되었으며, 중국과는 다른 예배 존상으로서의 특징을 창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제석천의 호국적인 면모는 쇠퇴하였지만, 여러 재앙을 없애고 복과 장수를 비는 기복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단독적인 주존보다는 범천과 위태천 혹은 여러 신중들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1741년에 그려진 흥국사(興國寺) '제석천도'를 통해서 고려시대를 거쳐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면을 향한 당당한 정좌와 선견성과 수미산이 그려진 부채를 지닌 모습에서 고려 '제석천도'의 전통과 특징을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하늘나라의 왕 제석천이 신중 신앙의 발전과 함께 여러 신들을 함께 구성하는 '신중도' 속으로 들어갔지만,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아수라를 정벌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힘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보수와 진보 떠난 새 정치 '중도'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⑱ 국가 · 국민정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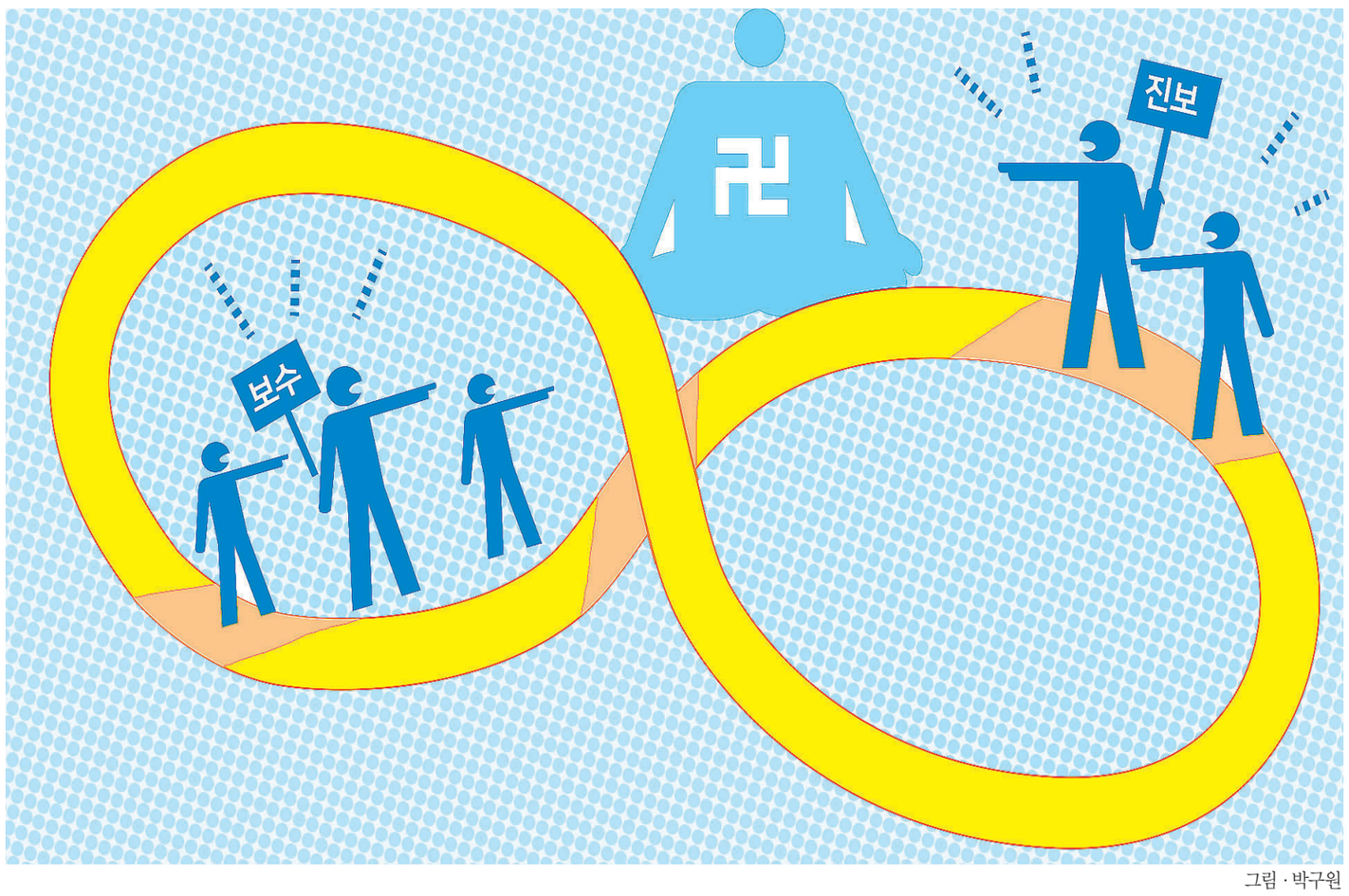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프랑스의 루이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사형된다. 당시 왕을 비롯하여 많은 귀족을 처형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 사형제도인 단두대가 고안되었다.

길로틴이라는 칼을 사용한 단두대는 그야말로 목을 싹뚝싹뚝 매우 빠르게 자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을 처형하기 좋은 기구였다. 단두대는 프랑스의 왕과 귀족 만이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온건파 혁명세력을 사형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로 이름 높다.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혁명 세력 중 강경파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신도 결국 반대파에 의해 단두대에서 죽는다.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세력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끊임없이 투쟁했다. 국민의 적을 무너뜨린 후 다시 혁명세력이 스스로 분열되었으니 온건파가 국민을 위하는 세력이었을까 강경파가 국민을 위하는 세력이었을까?

온건파와 강경파는 회의 때 끼리끼리 앉았던 모양이다. 온건파는 오른쪽(우)에 앉았고 강경파는 왼쪽(좌)에 앉았다고 한다. 좌파와 우파의 기원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온건파는 우파로 불리웠고 강경파는 좌파로 불리웠다.

오늘날은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을까?

보수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수는 인간이 옛날 제도를 버리고 쉽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과거의 제도가 갖고 있는 좋은 점 때문에 과거 제도를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한다.

진보는 인간이 옛날 제도를 벗어나 개혁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보수는 가정과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다보니 때로는 국수주의로 치닫는다. 진보는 사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가를 넘어 세계주의적 관점에 기운다.

보수라고 해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의 제도를 급격하게 벗어난 도약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에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이고 과거의 제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둘 뿐이다.

불교는 브라만교의 폐해를 목격한 부처님이 내세운 개혁적인 종교다. 계급제도를 부인하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였다. 친시장 친자본적 경제관을 피력하고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진보다.

〈장아함경〉은 '또 나라에 옛 법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고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륜성왕의 수행해야 할 법이다' 고 설한다. 다시 〈장아함경〉은 '오직 이 한 왕은 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옛 법을 이어 받지 않았다. 그 정치는 공평하지 않아 천하는 원망으로 호소하고 국토는 줄어들며 백성들은 시들어졌다.…왕이여, 지금 국내에는 총명과 지혜가 두루 통달해 예와 이제를 환히 알고 선왕들의 정치의 법을 갖추어 아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불러 그 아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마땅히 대답할 것입니다.…왕은 그 말을 듣고 옛날의 정치를 행하고 법으로써 세상을 보호했다' 고 설한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보수다.

개혁 진보와 안정의 보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지향
극단평가, 상호비방 자제
'국민행복'에서 중도 회통

연기법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있음에서 없음을 보고, 없음에서 있음을 보는게 연기법이다. 진보이되 진보를 벗어나며 보수이되 보수를 벗어난다. 불교적 정치관이란 때로는 진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이기도 하며 때로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중간도 아니라는 말이 된다.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보수적인 정치관은 시장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정부관을 지지했다.

정부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만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에 개입하되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정치사상은 야경국가를 낳는다. 야경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밤에 순찰을 하듯이 낮에는 시장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밤에 범죄나 방지하면 된다는 정치관이다. 시장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정부는 범죄 예방에만 전념한다면 '작은 정부' 를 의미한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형평성은 결여된다. 영국의 경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서 노동에 내몰리며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저임금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했고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불만의 표출이다.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계층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추진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했다. 시장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이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진보주의자의 시각은 일부분 온정적 보수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진보주의자는 복지를 비롯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정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큰 정부가 등장한다.

원래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얼마의 신뢰를 부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한마디로 보수는 변화로 인한 이익은 변화로 인한 손실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만 진보는 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시장개입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보수와 진보의 구별에도 다른 기준이 생겼다.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실패 교정만 하자는 작은 정부 주의자들은 보수이다. 복지 등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큰 정부 주의자들은 진보다.

불교의 연기법은 수많은 인과 연이 임시적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임시적 결과는 또 다른 인과 연이 되어 연기한다.

연기적 세계에서는 계산에 의한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기에 시장에 맡기는게 더 좋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불교는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는 보수다. 불교는 가난한 사람에게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심지어 외로운 이에게 배우자를 주선해 줄 정도로 복지를 지향한다. 복지는 정부에 더 많이 의존하는 진보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진보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이분법에 젖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불교는 진보도 보수도 진보와 보수의 중간도 아니며, 진보이고 보수이며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있음에서 없음을 보고, 없음에서 있음을 보아야 한다.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도 진보 혹은 보수로 분류하기 어렵다. 특정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라 할지라도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국방정책, 대북정책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다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보라고 낙인찍고 모든 정책에서 그 사람이 진보적인 관점을 갖는 것으로 왜곡한다.

게다가 뭐가 진보고 보수인가도 애매하다. 원래 보수는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지 않고 관습과 기존제도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붙인 명칭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이고 시장경제를 상대적으로 덜 신봉하고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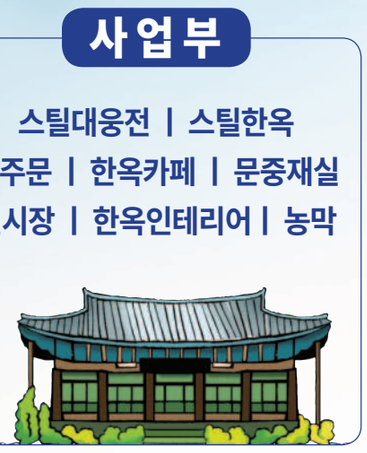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진보이고 보수가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사용할까?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단어 개념부터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나는 무상복지는 반대이고 선별적 복지에 찬성이다. 이것을 보면 보수 같다. 기업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진보 같다. 그렇지만 기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주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우수기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시장을 신봉하는 보수다. 연봉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을 별로 신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위해 뭐가 제일 좋은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가 있나 궁금하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관치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모든 정당이 복지에 적극적이니 구별이 안된다. 오직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지 온건한 입장인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온건한 보수이고 정의당이 진보이다. 많은 국민이 정의당을 공산당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럽 각국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 수준 밖에 안된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도는 항상 중간이나 평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중도는 때로는 보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보이기도 한 관점이다. 중도는 평균이고 중간일 수도 있다. 중도는 때로는 약간의 과부하나 약간의 과부족이다. 중도는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아집, 독선, 슬픔, 기쁨, 분노가 없는 생각과 행동이다. 집착이 없어야 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여당 지지도 아니고 야당 지지도 아니라고 중도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중도다.

〈고려대 명예교수〉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수행 통해 간화선 체계 정립하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⑱ 고봉원묘



47 절강성 항주 천목산 사장암에 있는 '고봉탑원(高峯塔院)'의 모습. 그는 이곳을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곳이라며 '사관(死關)'이라고 명명했다. 현재 안에는 원묘의 형상이 봉안돼 있다.

우리나라는 간화선 선풍을 근간으로 한다. 간화선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어록이 몇 있다. 그 가운데 간화선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중요 어록이 〈선요(禪要)〉이다. 〈선요〉의 저자는 송나라 말 원나라 초기에 활동한 고봉 원묘(高峯原妙, 1238~1295)선사이다. 조선 초 벽송 지엄(1464~1534)은 〈대혜어록〉을 보면서 '구자무불성'을 참구해 의심을 타파했고, 원묘의 〈선요〉를 통해 알음알이(解)를 내려놓았다. 벽송은 평생 동안 원묘의 선사상을 기반으로 선풍을 전개했는데, 벽송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찰승가대학의 교과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원묘의 수행 체험과 과정이 담겨 있어 중하근기 선객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원묘의 출가와 수행

고봉 원묘(高峯原妙, 1238~1295)선사는 송나라 말, 원나라 초기에 활동했다. 원묘는 강소성 소주 오강 사람, 호가 고봉(高峰)이다. 원묘는 15세에 가화(嘉禾) 밀인사(密印寺) 법주 선사에게 출가했다. 일찍이 천태학을 배웠으나 교의 무익함을 깨닫고, '생멸심을 끊고 중생심을 벗어나 부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선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선으로 돌아섰다. 그는 항주 정자사(淨慈寺)에서 단교 묘륜(斷橋妙倫, ?~?)과 설암 조흠(雪岩祖欽, ?~1287)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설암 선사를 따라 천녕사(天寧寺)에 머물렀다.

원묘는 화두를 처음 받고 잘 되지 않아 3~4번 화두를 바꾸었다. 그가 깨달음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선요(禪要)〉 28장에 "20대 초반, 처음 단교 선사에게 참문하고, '태어날 때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生何處來 死何處去)' 화두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묘는 이 화두를 붙잡고 있어도 화두가 순일하지 않았다. 다시 설암 조흠을 찾았다. 설암은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자마자 원묘의 멱살을 잡고 방망이질을 했다.

이렇게 인연된 설암 선사는 원묘에게 무자 화두를 참구토록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하루의 갈 길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처럼 너는 매일 올라와 한마디 일러라."

이에 원묘가 설암 선사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였다. "누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겁니까?(拖死屍的是誰)"

이렇게 질문하면 설암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원묘를 내쫓았다. 이후 원묘가 경산으로 돌아와 지내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처음으로 단교 묘륜이 자신에게 주었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가 떠올랐다. 이로부터 의정(疑情)을 내었는데,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다 6일째 되는 날, 원묘는 대중을 따라 누각에 올라가 경전을 독송하다가 문득 머리를 들어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의 진찬(眞讚)을 보니, 끝 두 구절에 "백년이라 3만6천 온갖 조화 부린 것이 원래가 단지 바로 이놈이니라"라는 구절에서 홀연히 '송장을 끌고 다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타파했다. 그런 뒤에 원묘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 무렵, 원묘 나이가 24세였다.

이후 설암을 찾아갔다. 스승이 원묘에게 물었다.

"번잡하고 바쁠 때에 주재(主宰)가 되느냐?"

"됩니다."

"꿈속에서 주재가 되느냐?"

"네! 됩니다."

"잠이 깊이 들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는 때에 너의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느냐? … 너는 이제부터 불법을 배울 것도 없다. 다만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곤하면 잠을 자되, 잠이 깨거든 정신을 가다듬고 '나의 이 일각(一覺) 주인공이 반드시 어느 곳에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가' 하고 참구하라."

원묘는 이때 '차라리 평생을 바보가 될지언정 맹세코 이 도리를 분명히 밝혀야겠다' 고 맹세했다. 이렇게 또 5년이 흘렀다. 원묘는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이 일을 참구하고 있는데, 함께 자던 도반이 잠결에 목침을 떨어뜨렸다. 원묘는 그 소리에 홀연히 의단을 타파하였다. 마치 엉킨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듯 불조의 공안과 고금의 차별 인연이 훤히 밝혀져 걸림이 없었다.

'선요', 간화선의 나침반 역할
'사관'에 머물며 정진해 悟道
'대신근·대분지·대의정' 강조
'江南古佛'이라며 존경을 받아

원묘의 주석처 '死關'과 오도

40세에 접어들 무렵, 원묘는 홀로 임안 용수산(龍鬚山)에 숨어 정진하였다. 1279년 41세에 항주 천목산에 개산노전(開山老殿)을 짓고 수행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를 피해 서봉 동공동 사자암에 작은 방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 방의 호를 '사관(死關)'이라고 했다. 그 옛날 길도 없는 험한 산길, 절벽 사이에서 수행했다. 말 그대로 다시 나갈 수 없는 무문관(無門關)이다. 당시 사관은 걸어 들어갈 수 없고, 줄을 타지 않으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험했으며,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토굴이었다. 선사는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 방을 나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원묘는 10년 동안 문턱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1291년 53세에 원묘는 봉우리 아래에 대각선사(大覺禪寺)를 개산하고, 선풍을 전개하자, 사방에서 수 만명의 선객이 모여들었다. 세납 58세 되던 해, 제자 명초明初와 조옹祖雍에게 후사를 당부하고, 임종게를 설한 뒤 입적하였다.

"와도 사관에 들어오는 일이 없으며/ 가도 사관을 벗어나는 일이 없네./ 쇠로 된 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리도다.(來不入死關 去不出死關 鐵蛇鑽入海 撞倒須彌山)"

원묘에게 계를 받은 제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법을 이은 제자는 중봉명본(中峰明本)·단애요의(斷崖了義)·포납조옹(布衲祖雍)·공중이가(空中以假)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 제자가 중봉이다. 원나라 인종(仁宗)은 1318년에 '보명광제선사(普明廣濟禪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고봉원묘선사어록(高峰元妙禪師語錄)〉이 있다. 이를 줄여서 〈선요〉라고 한다. 원묘가 열반한 후 속가 제자인 홍교조(洪敎祖) 직옹(直翁) 거사가 원묘의 말씀을 발췌해 편집한 책이 〈선요〉이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선사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봉 원묘는 철저하게 계율에 엄격해 많은 이들에게 계를 주었다. 그의 가풍은 자비 문중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아 '강남고불(江南古佛)', '고봉고불(高峰古佛)'이라는 존칭을 받았다.

〈선요〉의 주요 내용은

〈선요〉의 내용 중에서 원묘의 사상을 두 가지로 보자.

원묘는 〈선요〉 16장의 시중(示衆)에서 간화선 수행의 3대 요소를 강조하였다. 대신근(大信根)·대분지(大憤志)·대의정(大疑情)이다.

"참선을 하고자 하면, 세 가지를 구족해야 한다. 제일요(第一要)는 대신근이니 마치 신심이 수미산에 기댄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함이요, 제이요(第二要)는 대분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한칼에 양단 내려는 마음과 같아야 함이요, 제삼요(第三要)는 대의정으로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큰일을 저질러 은폐되었던 일들이 막 폭로되려고 할 때와 같아야 한다."

즉 신심이 있어야 하고, 큰 의심이 있어야 하며, 꼭 깨닫겠다는 분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서산 대사도 〈선가귀감〉에서 "참선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신근이요, 둘째는 분지요, 셋째는 의심이다. 진실로 그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다리 부러진 솥과 같으며 마침내 그릇이 깨어진다"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고봉삼관'이다. '고봉삼관'은 〈선요〉 29장 '실중삼관(室中三關)'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삼관이란 스승이 참학자를 접인할 때, 제시하는 세 가지 관문으로서 학인의 공부를 점검하고 참구케 하는 화두이다. 선사들은 마치 관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서운 수문장처럼 이 문을 통과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 문을 뚫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①밝은 해가 허공에 떠서 비추지 않는 곳이 없거늘 무엇 때문에 한 조각구름에 차단되는가? (杲日當空 無所不照 因甚被片雲遮卻)②사람마다 그림자가 있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거늘 무엇 때문에 밟히지 않는가? (人人有箇影子 寸步不離 因甚踏不著)③온 대지가 불구덩이거늘 무슨 삼매를 얻어야 불에 타지 않겠는가? (盡大地是箇火坑 得何三昧 不被燒卻)

즉, 이 마음이 곧 부처인데 왜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가? 무명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맷돌과 풍로 · 철병 등 다양한 茶具 활용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⑱ 고려시대 차도구

고려 시대의 다구(茶具)로는 차 맷돌(茶磨), 주자(물 주전자), 풍로, 다완, 은 탕관, 철병, 돌솥 등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청자 다완((茶碗, 찻 사발)은 고려인의 감수성과 예술미를 잘 구현한 찻그릇이다.

12세기 고려 왕실에서 사용했던 다구에 대한 기록은 서긍(徐兢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상세히 수록해 두었는데, 특히 〈기명(器皿)〉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하여 차와 관련된 여러 도구를 만든다. 금화오잔(金花烏盞), 비색소구(翡色小甌), 은로탕정(銀爐湯鼎)은 모두 중국 것을 흉내 낸 것들이다(…)관사 안에는 붉은 찻상을 놓고 그 위에 다 차를 마실 때 쓰는 도구를 진열한 다음 홍사건(紅絲巾)으로 덮는다.



청자 음각 파도물고기무늬 완, 고려, 높이 4.5cm 입지름 1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윗글은 선화 5년(1123)에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고려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림과 글로 엮어 휘종에게 올린 사행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던 다구로는 금화오잔, 비색소구 같은 다완 종류와 물을 끓이는 은으로 만든 화로와 솥, 그리 찻상과 찻상을 덮어 두는 붉은 천으로 만든 덮개용 천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긍이 언급한 금화오잔은 이 시기 중국에서 유행되었던 토호잔, 검은색 다완이 고려에서도 생산되어 사용되었고, 특히 비색소구는 청자 다완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고려 왕실에서는 청자 다완이나 흑색 다완을 사용하여 흰 다말을 선호했던 시기에 예술미를 한껏 드러낸 다완이 유행되었던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12세기 말에서 13세기에 고려 문인이 남긴 시문에는 이 무렵 사용했던 다구를 언급한 글이 눈에 띄는데, 이는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승원의 차 맷돌(僧院茶磨)〉과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차 맷돌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謝人贈茶磨)〉 등이 그것이다. 차 맷돌은 미세하고 고은 입자의 차 가루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는 연고차(硏膏茶)의 출현 이후 등장한 다구로, 대개 화강암으로 만든 차 맷돌이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승원에서 청자로 만든 차 맷돌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차 맷돌은 고려 시대에 음다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다구인데, 이규보의 〈차 맷돌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謝人贈茶磨)〉는 차 맷돌의 소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가 노래한 차 맷돌의 모양과 소재는 다음과 같다.

돌 쪼아 바퀴 하나를 만들었으니(琢石作孤輪)
(차 맷돌)돌리는 덴 한쪽 팔만 쓰네
(迴旋煩一臂)
그대도 차를 마시면서(子豈不荅飮)
나에게 보냈는가(投向草堂裏)
내가 유독 잠 즐기는 걸 알기에(知我偏嗜眠)
내게 보낸 게로구려(所以見寄耳)
갈수록 향기로운 가루 나오니(硏出綠香塵)
그대 마음 더욱 고맙구려(益感吾子意)

윗글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 권14에 수록된 것인데, 이 시에는 차 맷돌이 어떤 소재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바로 '돌 쪼아(琢石)'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청주 소재 사뇌사에서 발굴한 차 맷돌이나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차 맷돌이 대부분 출토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고려의 차 맷돌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의 현존 차 맷돌과는 소재와 모양이 다른 형태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뇌사와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차 맷돌은 수 맷돌 부분이 오판 화형으로 어깨 부분이 약간 둥근 형태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차 맷돌은 원통형이며 오석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그러므로 고려의 차 맷돌은 소재나 디자인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고려의 다구는 고려적인 색채를 함의하여 차 문화를 일궈낸 시대였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 시대 차 맷돌에 대해 이인로(李仁老 1152~1220)도 〈승원다마(僧院茶磨)〉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승원의 점다(點茶)가 우선 물을 끓이고 차를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드러낸 자료이다. 그가 노래한 승원에서 차를 가는 정정황은 다음과 같다.



사뇌사지 차 맷돌.

> 예술미 잘 구현한 청자 다완
> 고려왕실에서 사용된 기록도
> 음다에서 빠질 수 없는 맷돌
> 출토화강암으로 제작되는 등
>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차 맷돌 천천히 돌아(風輪不管蟻行遲)
월부가 돌자 옥가루가 날리네.
(月斧初揮玉屑飛)
법희란 본래 실로 자재한 것(法喜從來眞自在)
맑은 하늘에 우레 치듯 (차 맷돌이)울리자
흰 눈이 날리는 듯(晴天雷吼雪霏霏)

윗글은 〈보한집〉 중권에 수록된 내용인데, 승원에서 차를 내는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처럼 묘사했다. 그러므로 차를 갈 때 차 맷돌이 돌아가면서 내는 굉음이 마치 우레가 치는 듯하고, 차 가루가 맷돌 틈 사이로 떨어지는 광경을 '흰 눈이 날리는 듯(雪霏霏)' 하다고 하였다. 흰 눈처럼 하얀 차 가루는 연고차 시대에 유행했던 백차(白茶)로, 차의 흰 거품을 찻잔 가득 피워내 마시는 차를 말한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진 시랑의 고시에 차운하여 올리다〉에는 "만약 그대가 시 읊어 주기를 기다린다면(若奉賢俟哦)/ 흰 소금과 솜 같은 차 거품 모두 꺼져버리리(鹽絮皆陳舊)"라고 하였다.

그가 흰 다말(茶沫)을 흰 소금이나 솜에 비유한 것이 종래의 문인들이 흰 다말을 흰 구름이나 하얀 눈이라 표현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흰 거품이 가득한 차는 점다한 후 바로 마셔야 진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지적처럼 시 읊기를 기다린다거나 혹은 다른 일로 차 마시는 일을 지체한다면 부드럽게 향기로운 차의 향과 맛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차를 향유하는 사람은 그 시점의 적의함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요긴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고려 시대에 물을 끓이는 도구로 철병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철병은 금속으로 만든 주전자로 주자(注子)라고도 부른다. 청자로 만든 주자와 청동 주자가 유물로 전해지는데, 이규보의 〈남쪽 사람이 보낸 철병으로 차를 끓여 보다〉는 철병의 모양, 용도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기에 당시 탕병의 형태를 엿 볼 수 있다. 〈남쪽 사람이 보낸 철병으로 차를 끓여 보다〉 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센 불이 강한 쇠 녹여 내어(猛火服悍鐵)속을 파 둔하고 단단한 것 만들었네(剞作此頑硬)긴 부리는 학이 돌아보는 듯(喙長鶴仰顧)불룩한 배는 개구리가 벌떡거리는 듯(腹脹蛙怒迸)자루는 뱀 꼬리 굽은 듯(柄似蛇尾曲)모가지는 오리목에 혹이 난 듯(項如鳧頸癭)입 작은 항아리처럼 우묵하고(窪却小口甀)다리 긴 솥보다 안전하네(安於長脚鼎)내 문원의 재주는 없으나(我無文園才)공연히 문원의 병을 얻었네(徒得文園病)오직 낙노를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唯思喚酪奴)이미 주성에게 중독된 것은 끊었네(已止中酒聖)비록 양자강의 물은 없으나(雖無揚江水)요행히 건계의 차가 있네(幸有建溪茗)사내종을 불러(試呼平頭僕)맑은 우물물 길어와(敲汲寒氷井)벽돌 화로에 손수(차를)달이니(塼爐手自煎)밤 누각에 등불 반짝이네.(夜閣燈火爛)(…)

앞의 이 시는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 권3에 수록된 것이다. 철병의 생김새가 속을 파 팅 빈 곳을 두어 물을 끓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구(注口) 부분이 마치 학이 돌아보는 듯 굽었고, 손잡이 부리는 뱀 꼬리가 굽었다는 점을 상세히 드러냈다. 특히 구연부, 즉 아가리는 입이 작은 항아리 같다고 하니 그 모양새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겠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문원은 누구일까. 바로 사마상여(司馬相如 BC179~117)를 말한다. 특히 부(賦)를 잘 지어 왕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거문고 연주에 능했는데, 임공(臨邛)의 부호 탁왕손(卓王孫)의 딸 문군(文君)이 그의 옥처럼 준수한 외모와 거문고 연주에 매료되어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여 평생을 함께했다고 전한다. 글 솜씨가 특출했던 그는 평소 소갈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무제 때 효문원영(孝文園令)에 임명되었기에 문원이라 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차는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다. 그러니 이규보가 "공연히 문원의 병을 얻었네(徒得文園病)"라는 말은 차를 좋아하여 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건계차는 송대의 명차로 어원에서 생산되는 차였다. 송대의 문장가 매요신(梅堯臣, 1002~1060)은 〈건계신명(建溪新茗)〉에서 "남국 그늘진 계곡 따뜻해지니(南国溪陰暖) 이른 봄, 차 싹이 돋았으리(先春發茗芽)"라고 하였다. 그만큼 명차였던 셈이다. 이런 명차를 고려의 문인도 향유했던 것이니 이들의 차에 대한 감상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지금 마음에 이미 모든 것 있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㉟ 道

"여러분, 제방에서 말하기를 닦아야 할 도(道)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 하나니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뭐가 모자라며 뭘 고쳐 보태야 한단 말인가?

못난 후학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들판의 여우같고 도깨비 같은 이들의 허튼말을 믿고 사람을 얽어매 놓고 말하기를 '이치와 실천이 일치하고 몸과 입과 뜻의 삼업(三業)을 잘 보호하고 아껴야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봄날의 가랑비처럼 흔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에 대해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삿된 경계만 다투어 일어나나니 지혜의 칼을 꺼내 들면 아무것도 없으리라,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둠이 밝아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옛사람은 또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느니라.

대덕들이여, 무슨 물건을 찾는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사람(無依道人)'이 역력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조사와 부처와 다름없기를 바란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보아 잘못될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살아 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하느니라. 만약 다름이 있으면 본성과 현상이 다른 것이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현상도 다르지 않느니라."

임제의 독설 같은 말이 연이어 나온다. 닦아야 할 도가 없고 깨달아야 할 법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다. 지금 쓰고 있는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도와 깨달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으니 더 이상 찾으려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수행을 잘해야 도를 이루고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도 닦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깨달음에도 관심 두지 말라는 투의 말이다. 이른바 닦음이 없이 닦는(無修而修)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닦되 닦음이 없다(修而無修)라고도 표현된다. 이런 경우를 무위심(無爲心)이라 한다. 무위심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함이 없는 것이다. 유위심(有爲心)에서는 시비(是非)를 논할 수 있으나 무위심에서는 주객이 나눠진 상태에서 경계를 의식하며 일으키는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은 〈전등록〉에 마조(馬祖)가 한 말로 나와 있고, 그 뒤 〈벽암록〉의 남전과 조주의 문답에도 나오는 말이다.

마조도 이렇게 말했다.

"도는 닦을 것이 없다. 평상심이 도일 뿐이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꾸밈이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취함도 버림도 없으며, 연속되거나 단절됨도 없고, 천하거나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위가 모두 도이다."

〈벽암록〉과 〈무문관〉에도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도를 물었을 때의 대화로 소개되어 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니라."

"그러면 닦아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으면 어긋나느니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도는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道不屬知不知) 안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요, 모른다는 것은 무기(無記)일 뿐이다. 참으로 도에 사무쳤다면 툭 트여 막힘이 없어 시비할 것이 없느니라."

이 대화 끝에 조주가 크게 깨달았다.

〈벽암록〉에는 이에 대해 무문(無門)의 송이 붙어 있다.

春有百花秋有月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가을엔 달이 밝고 / 夏有涼風冬有雪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흰 눈 / 若無閑事掛心頭 마음에 부질없는 것 걸려 있지 않으면 / 便是人間好時節 이것이 인간의 좋은 시절이라네 〈조계종 고시위원장〉

사무량심과 반야지혜 함께 닦는 보살



세상 속 경전읽기

㉟ 지혜와 자비

절에 들러 각 전각을 돌며 참배를 하다보면, 전각 기둥의 주련(柱聯)이 눈길을 끈다. 주련은 전각을 장식하는 역할과 함께 참배객 또는 관광객에게 불교사상의 일단을 드러내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다. 그런데 주련의 글귀는 으레 한자로 새겨져 있다. 한자세대가 아닌 영어세대들은 읽을 수가 없다. 해서체[楷書體, 정자체(正字體)]가 아닌 경우에는 한자세대도 잘 읽지 못한다. '읽을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는 현대와의 접점이 취약한 불교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에 따라 간혹 주련 글귀의 정자체와 한글번역을 주련 옆 눈높이에 곁들여 붙여놓은 곳이 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 그 앞에 서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으며, 어린이가 낯선 단어를 물으면 부모가 아는 만큼 더 쉽게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외국인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젊은이도 볼 수 있다. 각 절마다 이런 조그만 친절을 베푼다면, 국민의 정서함양과 불교홍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영어번역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이겠다. 대웅전 주련에서 자주 보이는, 〈석문의범(釋門儀範)〉이 출처인 글귀 하나를 소개한다.

"부처님 몸 시방(十方) 세계 두루하시고, 삼세(三世)의 부처님 모두가 그러하시네. 광대한 서원(誓願)의 구름 항상하여 다함이 없고, 넓디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다 밝히기 어렵네."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 廣大願雲恒不盡 汪洋覺海渺難窮] 〈釋門儀範 諸佛通請 香華請 中〉

부처님은 무량한 수명[無量壽]과 무량한 광명[無量光]으로, 시방삼세의 시공(時空)에 걸리지 않고 편만(遍滿)하면서, 무상정등정각자(無上正等正覺者)로서 무변중생(無邊衆生)을 다 건지겠다는 홍서(弘誓)를 갖추고 계시다. 네 번째 구의 '묘(渺)'자는 '아득함'을 뜻한다. '아득함'은 무한소[無限小. 더할 수 없이 작음]이자, 무한대[無限大. 한없이 큼]이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구류중생(九類衆生)을 모두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할 서원을 지니고 제도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생이 아상(我相) 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온갖 중생들의 종류인, 알을 깨고 나온 생명 · 태에서 낳은 생명 · 습한 곳에서 생긴 생명 · 변화하여 생긴 생명 · 모습 있는 생명 · 모습 없는 생명 · 생각 있는 생명 · 생각 없는 생명 ·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생명들을, 내(보살)가 모두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 받은 바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ātman] · 사람이라는 관념[pudgala] · 중생이라는 관념[sattva] · 생명이라는 관념[jīva]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곧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金剛般若波羅密經 T0235_.08.0749a05–a11〉

보살은 자비를 비롯한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반야지혜(般若智慧)를 함께 닦는다. 자비는 내(보살)가 다른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할 때 완성된다. 반야지혜는 '제법(諸法)'의 체계적인 관조(觀照) 곧 선정을 통해, 아견[我見, 내가 있다는 견해]이라는 미망(迷妄)을 벗어난 지혜이다. 자비는 나[我]를 무한대로 확산해 가면서 모든 중생이 나와 동체(同體)임을 구현하는 것이고, 지혜는 나[我]를 무한소로 축소해가면서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증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보살이며, 이러한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도리는 '아득하여 다 밝히기 어려운 것[渺難窮]'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닦음의 길 21

절 수행, 아상 소멸 프로젝트

등산을 하다 보면 산행은 운동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떤 이들은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산에 가곤 한다. 처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르막이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 산을 오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이 텅 비워지는 무념(無念)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정리가 된다. 그저 땀을 흘렸을 뿐인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산행을 하면 마음 정리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무념에 있다. 땀을 흘리면서 복잡한 생각, 번뇌가 모두 텅 비워졌던 것이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이 되면,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산행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절 수행 역시 산행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절 수행을 시작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할지 몰라도 1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무념의 상태가 된다. 그렇게 절 수행을 마치고 나면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절은 무명(無明)으로 찌든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心身雙修) 수행이다.

절 수행이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은 아무래도 성철(性徹, 1912~1993) 선사의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선사가 3천배를 해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어쩌면 선사를 찾아온 사람은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절을 하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번뇌가 사라졌을 테니 말이다. 2000년에는 법왕정사에서 오랫동안 일반인들과 함께 절 수행을 해온 출가사문이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오늘날 절 수행의 위상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되었다. 그동안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인식되었던 절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수행체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절 수행은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절의 의미를 공경(敬)과 굴복(伏) 두 가지로 압축하였다. 먼저 절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공경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 수행은 본래 부처인 참 성품을 공경하는(恭敬眞性)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절은 무명을 굴복시키는(屈伏無明) 수행이다. 절이란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누군가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다. 절을 하심(下心), 즉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절은 번뇌, 망상의 껍데기를 벗겨내고(伏) 본래의 참 성품이라는 알맹이를 드러내는(敬)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공경과 굴복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념이 되기 때문이다. 무념(無念)이라고 할 때 마음(念)이란 다름 아닌 번뇌, 망상, 삼독, 무명 등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아상(我相), 즉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절은 단순히 자신의 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낮추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 수행이 잘 되면 '나'라고 하는 상(相)이 완전히 소멸되어 본래 무아(無我)임을 깨칠 수 있는 것이다. 깨침이라는 불교의 본래 목적에 절 수행이 부합된다는 뜻이다. 절 수행이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처럼 절 수행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왜 절을 하는지, 절 수행이 나의 실존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 수행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절은 아상을 제거하여 무아를 깨치기 위한 수행인데, 오히려 '나는 3천 배를 몇 번 했다'는 아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아상으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춘다면, 절 수행으로 건강을 얻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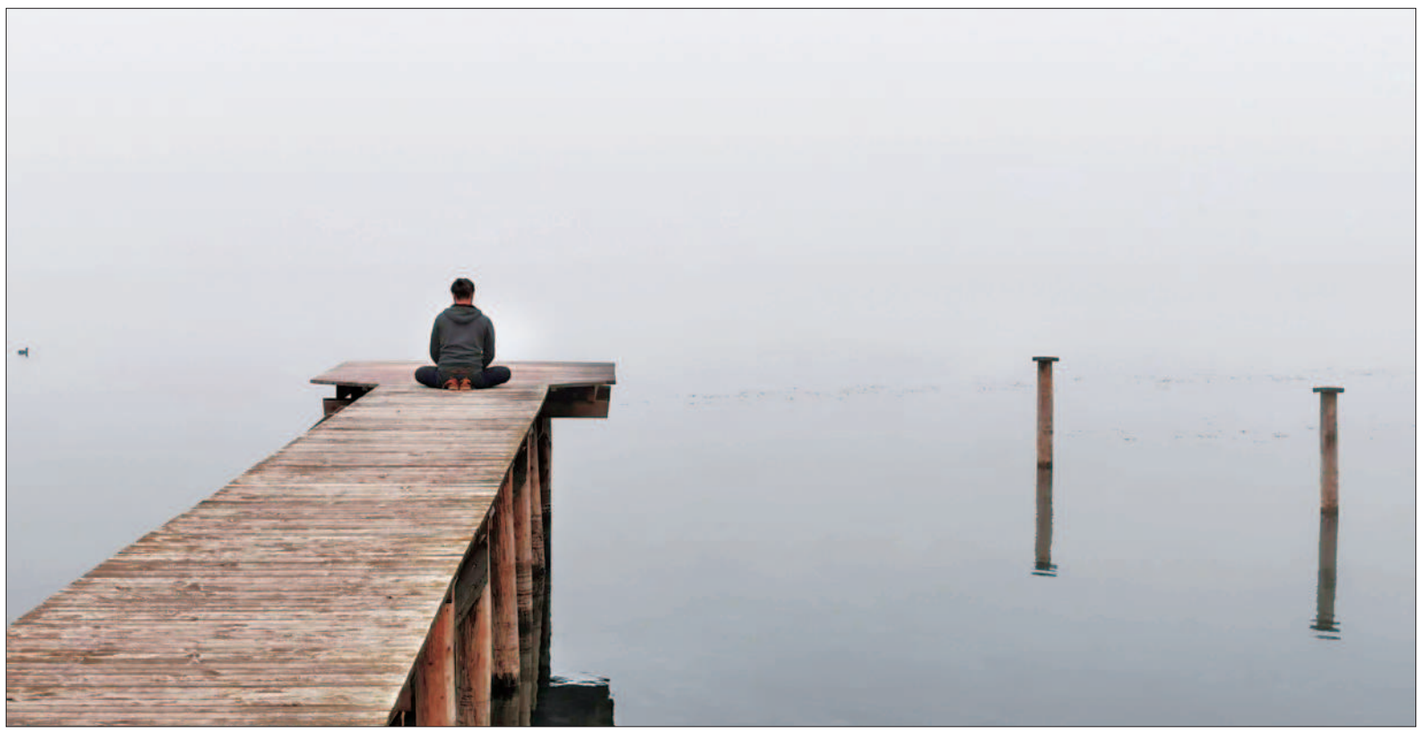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근본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⑱ 불만과 감사



"꿀 속에 독이 있음을 안다면 그 꿀을 먹겠느냐?"

"그 꿀을 어린 자식이 먹으려 든다면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느냐?"

18-1 붓다의 말씀대로 우선은 꿀맛이지만 결국 독약이라면 그걸 아는 현명한 자는 꿀맛의 유혹을 떨쳐내야 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여실지견)' 는 붓다의 명언은 겉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도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속내를 보면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닌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맞는 경우가 있다면 전체 부정이 그릇된 것이지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단답형은 결과만 보아 정답 아니면 모두 틀리지만주관식은 풀어간 과정을 보아서 계산 결과가 틀렸드래도 8-90% 가점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상대에게 가르침 대신 상처를 주고 말아 교육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18-2 '안돼' 에 대응하는 진언은 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래' 진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그래' 라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를 적용해보면 이것은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고 인정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자신을 위로하고 감싸고 안아주는 치유 효과가 발생함을 느낍니다.

화가 났을 때도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과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못 됐어' 라고 하는 반응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화를 못 참고 화를 낸 자신을 처벌하고 비난하고 후회 한탄하는 것은 죄책감을 키울 뿐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화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화는 나쁘니 화내면 안 돼' 라는 태도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전자는 너그럽고 여유와 부드러움이 있는 데 반해 후자는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추상같고 매섭고 차갑습니다.

18-3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요소는 부드러운 수용과 이해와 사랑이지 가차 없는 질책이나 처벌 비난이 아닙니다. 전자가 사랑과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후자는 불만과 적대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익숙한 사람과 후자에 익숙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단 반응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줍니다. 후자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라며 일단 부정하고 나섭니다. 전자는 부족함에도 격려를 받아 더 나은 상태로 가능성을 고무시키는 데 반해, 후자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매몰시키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전자에겐 황희 정승의 이해와 관용이 있지만 후자에겐 완벽주의자의 불만과 분노가 깃들어 있지요.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이 마음의 여백을 갖기 위해서 수시로 호흡을 챙겨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지금 몸 상태를 느껴보곤 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마음 상태와 몸과 호흡 상태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리 하노라면 화가 올라오건 미움이나 짜증이 올라오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나오게 된 연유와 배경도 드러나게 되어 현명한 해결도 가능하겠습니다.

18-4 훈육에도 바람직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고트만은 5:1의 룰을 지키라 합니다. 칭찬을 5번 하고 나서 훈계나 지적을 한 번 하는 교육의 황금률입니다. 야단이 효과가 있으려면 5번의 칭찬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옳은 지적이나 훈계도 부당한 간섭이나 불필요한 잔소리로 들리니까요. 상담을 해보면 칭찬을 받아 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술회하는 내담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는 무결점은 오히려 강박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을 살리고 더욱 키우는 것이 치유의 원리입니다. 통제하려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우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게 좋은 교육입니다.

여실지견, 문제근본 확인
의료 사태 수가문제 원인
싸고 좋은 서비스는 없다
인위적강제, 악영향 끼쳐

18-5 경청과 수용은 개인 간에도 필요한 덕목이지만 단체 간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상대를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경청-수용-존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삼자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관계는 갈등 속에 빠지고 파열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적용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웃음)

관계의 일방성은 관계의 파탄이고 사회 분열의 원인입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지배하려 든다면 상호 존중은 사라지고 깊은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혐오감마저 발생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선 대화가 단절되고 극한 대립이나 극한 투쟁으로 맞서게 되지요.

18-6 이것을 작금의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적용하여 분석해 볼까요?

코로나 사태로 본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음이 입증되었고 방역 일선에 선 의료인들의 자발적 참여도 눈물겨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들이 갑자기 벼랑 끝 극한투쟁을 선언할까요? 정부나 여론은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으로 규정하고 매도합니다. 과연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밥그릇을 위해 의사 시험까지 거부하고 나설까요? 의료계가 진정 요구하는 내용은 상세히 알리지 않고 정부의 정책만 알리는 언론도 편파적입니다.

중세 1000년 간 카톨릭 교회에서 자행된, 전통적 견해에 반하는 의견들에 대해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공개리에 화형에 처한 마녀사냥은 우민들을 길들이기에 효과적이었지요. 현대판 마녀사냥은 여러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론재판입니다. 어느 일방의 의견이 다수의 배경을 업거나 권력의 힘으로 강제될 경우 마녀사냥이 되곤 하지요. 포퓰리즘에 편승한 의료정책도 같은 범주입니다. 당사자들인 의료인들의 의견을 배제한 의료정책은 결국 한국 의료계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18-7 정부는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국민 또한 의료계의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계의 태반은 공공 의료가 아닌 사적 재원에 기반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국공립이라면 정부의 정책은 타당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사자인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가 공공재가 되려면 의사 양성부터 취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공공 의료를 시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 현실은 완벽한가요? 선진국들의 의료 현실도 의사 수가 충분한데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영국만 봐도 진료 받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을 대기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지요. 의사 수가 많다고 해법은 아니군요. 의료정책 입안을 한 학자나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가 영국을 모델로 삼는다면 아니 되겠지요.

18-8 의료 정책 갈등에 대한 해법도 상호 존중의 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한데 그래야 마땅하고 그렇지 못하면 징벌하리라는 태도는 분명 이중적입니다.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를 부모가 가지면 그 자녀는 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나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방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이지요. 게다가 국민의 여론을 빌미로 의사에게 무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마녀사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 고 약속하면 될 텐데 정부의 태도는 고압적인 명령입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의 이중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지요. 의사에게 높은 기대를 거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우수한 전공의들이 힘든 외과계나 중환자들 대신 안전하고 비보험으로 쉽게 진료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립니다. 그 뿌리엔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 수가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바용으로 가장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공립병원이나 유수한 대학병원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그 증거입니다.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지자체에서 폐쇄시킨 이유도 적자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역 의원에서 맹장 수술이나 분만이 사라진 것도 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 없는 낮은 수가에 기인합니다.

18-9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사를 전체 매도하는 것은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언론이라면 문제의 땜질 처방 대신 심층 분석을 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의료 전문가들에 의존하고 있듯이 의료정책 입안에도 의료 전문가들에게 그 주된 역할을 맡겨야지 행정 관료나 시민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답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고 의료계에 약속하고 실제로 원점에서 진지하게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콤하지만 머지않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차제에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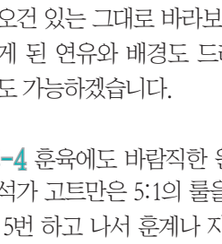
오만함 대신 낮춤을
열등감 대신 긍지를
경멸과 무시 대신 존중과 배려를
꽉 채우려기보다 비워내기를
받기보다 베품을
충동적 반응보다 지긋이 지켜보기를
비난과 훈계보다 칭찬과 격려를
불만보다 감사를
나와 남 과이웃에게
그렇게 온 세상에 보낸다면
온누리가 환해지고 밝아질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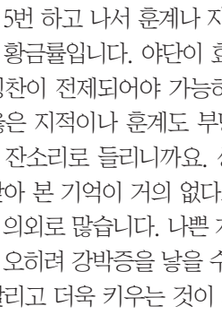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9호 | 15 | 전면광고

지난날의 일을 참회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P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 백연사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중구
010-8721-2198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이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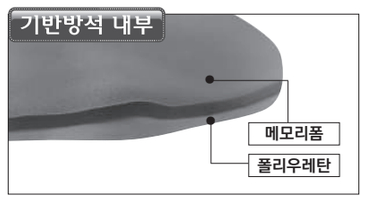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9호 | 16 | 전면광고

비유컨대 큰불이 초목을 송두리째
태워 버리듯, 성자의 지혜의 불꽃도 번뇌를
태워 없앤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정법문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서울·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찰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불)1억5천 석불로 3천전 모심, 극락전 1억 3천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천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3억5천 포함)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 30분거리)
- 대지 : 199평
- 건평 : 22평
- 가액 : 3억 5천
- 잔디밭, 5층석탑, 석등 기타 (경치, 전망 아주좋음)

010-4822-7233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 4-1 토굴 양도(임대)합니다.
- 방문후 임대, 가격조정가함.
- 법당,산신각,요사채,창고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년20만원

010-57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010-2727-6899, 02-488-01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방고개길 62-137
- 대지230평/전70평, 건물50평, 중법당20평
- 요사채30평(가전제품.가구 양도가능함)
- 법당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융자4800만원)

010-9177-7842

인법당 안내및 임대

- 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2층건물
- 1층 접견실 및 요사채, 주방
- 2층 법당 및 스님침소, 옥상태양광설치
- 대지 200평, 건평 60평
- 비구니스님 적격, 바다 50m, 조망권 최상
- 가액 : 3억 5천(대출1억 포함)
- 임대가액 : 1500만원/월30만원(시설비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집기일체 모두드림)

054-482-6600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857-281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도심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 옥산면 금광사
- 법당 약25평, 후원 30평
- 대지및 도로 약 5백평
- 가액 : 2억

010-8707-3490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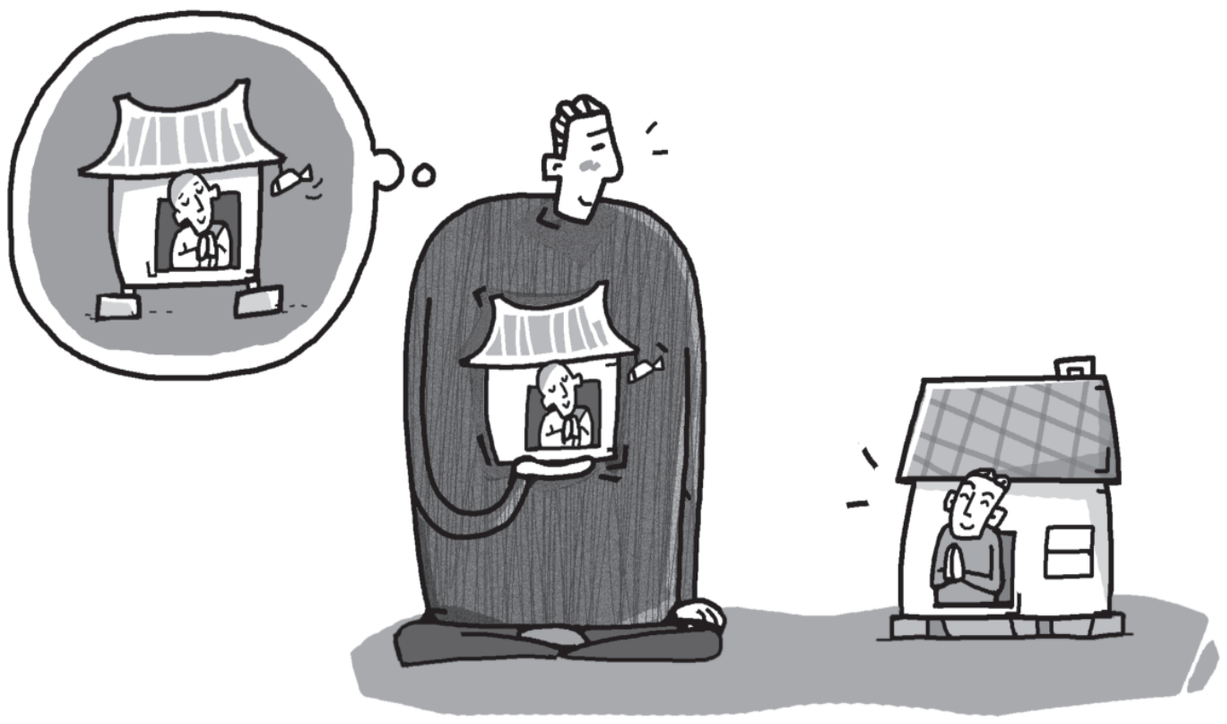
입력된 자체를 부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8월 추석을 지내셨습니다. 8월 추석을 지내신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음미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첫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이 지수화풍이나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그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다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없으면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 하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일체 만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림 · 최주현

그리고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나는 거나 알로 나는 거나 화해서 나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씨도 아니요, 사람 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도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무서운 것은 둘째 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사상이 그르다 해서 만약에 부모한테 어떤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 자식까지도 연관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현실에 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써 이렇게 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제각기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몸도 가져갈 수 없고 보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부부와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고, 모든 권속도 가져갈 수가 없고 권리도 아무것도, 친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벌레로 가지고 나오느냐, 새로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가지고 나오느냐, 개로 가지고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사는 게 뭐,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새 새끼나 짐승이나 땅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하는 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점에 있고 무쇠는 무쇠점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이 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하고 짖을 수밖엔 없는 겁니다. 새로 나왔다면 새로 지저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이나 곱게 해 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취를,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그 재를 가지런히 해 놓은 거기에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 눈앞에 그냥 널렸고 천당도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 진실로써 그냥 막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다가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에 가서 다시 재생돼서 나오지만, 무쇠나 넝마라면, 깡통이나 그런 철 종류라면 가서 재생이 돼도 철 종류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세세생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모두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대로. 이걸 소홀히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로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떠한 병이다 하면 거기

☞ 18면으로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에서 그냥 깜빡 마음이 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체내의 모든 의식들에게 하나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잘못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못되는 거, 잘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되는 겁니다. 입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컴퓨터는 물론 사람이 넣는 것만 입력이 되지만 이 자동적인 심성의 컴퓨터는 아주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도, 큰 거나 작은 거나 세세한 것까지도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거는, 알고 입력이 된 것은 현실에 알게끔 나오고, 모르고 입력이 된 것은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과정에서 천차만별의 이 마음 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살 때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가 맡겨 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 또 비고, 이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런 쉬운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아주 손쉽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생각이 모자라서 내다볼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먹어 보지 못해서 맛을 모르고 듣질 못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항상 독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독이라면 독 속에서 나와야 내 몸뚱이 독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건데, 당신네들 이 몸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나와야 그 자기의 몸뚱이 항아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항아리를 굴린단 말입니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 보지 않더라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단번에 그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번에! 전자에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러던 것이 그냥 단번에 '아, 저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이런 것이 아주 단번에 옵니다.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깐요. 우리들의 법을 빼 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것을, 한생각이면 두루 할 수 있는 것을…. 한생각에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뺏어 갑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해가 갑니까?

대중 예.

큰스님 이해가 가셔야 될 겁니다. 여직껏 그래도 마음공부라고 이끌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도 전깃줄이 돼서 한 전깃줄이 내 전깃줄에 와서 닿으면 불이 밝게 켜지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 전깃줄도 아니요, 저 전깃줄도 아니다. 단,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듯이,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밝게 불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다 밝게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가정도 그렇고 넓게 생각한다면 어떤 지역도 국가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진데 공동묘지의 그 시체들을 각자 이렇게 태운 게 아니라 그냥 한데 몰아서 갖다가 뿌려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공동묘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당할 수밖에.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죽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여기에다 절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하나하나가 쭉 그냥 물밀듯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어디 대답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

신도1(남)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큰스님 말로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이 마음속의 진실과 또 극치적인 나라는 게 없고 상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이 여래, 이 자체는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가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 둘이 아닌데, 뭐.' 체가 없는 거니까, 나도 마음이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모두 두드러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꺼내도 줄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한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으로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트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와 하는 자가 항상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고. 그 원인이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만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스님, 간단하게 제가 무와 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 사람들이,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걸 근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제사(祭祀)라든가 이런 걸 지내는데 집안 전체 싸움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무의 세계에서 요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숙모님이 추석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갔다 오다가요, 그 이웃집에서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뒤에서 삽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연속 연속 낫을 들고 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무의 세계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전체가 무와 유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스님 그런데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齋)를 지내거나 천도를 시키거나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찹쌀가루 전병 부쳐서 세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아홉 조각, 열두 조각 이렇게 해 놓고…. 일체 부처님의 조상이나 이 중생들의 조상이나 따로 없으니까 모두가 한 조상, 한마음의 조상으로서 일체 영령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표시! 저 불 켜 놓고 향 켜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그거면 족합니다.

>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 자기한테다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라.**
>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그래서 이 영령들이 상을 차려 놓으면 상 차려 놓았다는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벌써 캐봅니다. 상 차려 놓았다는 생각을 벌써 영령들이 알거든요. 그 상 차려 놓은 것만 알게 된다면 영령들이 어떻게 천도가 됩니까? 먹을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 그 한 티끌만도 못한 우주를 한꺼번에 거기다 제시한다면, 우주 삼세를 다 제시한다면, 문을 열어 준다면 그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됐는데 왜 또 지내느냐 이러겠죠? 그거는 죽어도 마음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꽉 찰 수도 있고 천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자식들이 은혜를, 부모의 묵은 빚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그 밑의 자식을 기르는데 제도를 하기 위해서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편을 쓰더라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방편을 써서 그 죽은 영령들도 산 사람들의 영령들도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돈만 받고선 상을 안 차려 줘. 이런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상 차려 주고 목탁이나 두들기는 데로 가야지 별수 없죠.

질문자1(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내거든요. 큰집, 작은집에서.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 마음자리에다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 지내러 두 집에 다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에 전생이 있다면….

큰스님 이거 봐요. 좀 사람이 쥐락 펴락이 있어야지. 바늘을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게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더라도 마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큰집에서 그렇게 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두 응해서 따라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영령들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댁이 마음이 흥락하고 좋으면 조상님도 좋고 그런데 그 몸뚱이가 뭐 잘났다고 거기를 안 갑니까? 하하하. 그놈의 '나'라는 거를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저 빼놓고 물레방아 돌아가듯 슬근슬근 돌아가십시오.

질문자2(여)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10년 전부터 병원에 늘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은 눈이 아파 가지고 영 앞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시신경이 말랐다 하는데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스님께서 이 눈을 좀…, 빛과 광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여기서는 관하는 도리를 무조건 가르칩니다. 관하는 도리를 첫째에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자기 정신적인 마음이 바로 물질적인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리로 끌고 가고 저런 생각을 해서 저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한 말을 했으면 한 대로 또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것에 착을 두고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그 자체를 부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 관하는 법을 열심히 진실하게 알고 행하면, 모든 병 증세도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것도 멀지 않아서 해결이 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잘 봐둬라 지도다



파미르는 파가 많아서 파미르일 거다
파밭에 지도가 한 장 그려져 있다

우선 산이나 강을 그려서 중심을 잡고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그려 넣고

큰 어른이 사는 곳
사냥하기 좋은 곳
그리고 우리 동네도 표시해 놓는다

그런데 진짜 지도일까?
상징적 의미일까?
누가 암호를 풀 수 있을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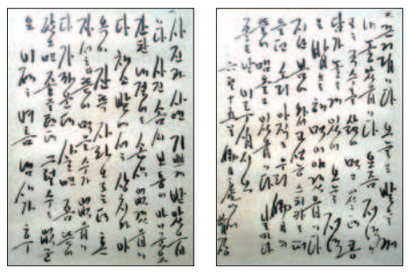
싸이말루이 따쉬에는 지도처럼 생긴 암각화가 많다. 이런 암각화에는 우선 높은 산이나 깊은 골 그리고 강을 기본적으로 그려 넣고, 길도 표시하고, 동물이 많은 곳, 사람들이 사는 곳, 또는 부족들의 상징 기호 같은 것도 표현하였다. 꼭 지도처럼 생겼다. 그런데 지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통하는 통일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제각각이다. 숫자도 너무 많다. 어쩌면 지도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곳은 부족의 성지(聖地) 같은 곳이라서 일생에 꼭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소원이나 의무가 있었다든지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먼 곳에 살지만 여기에 꼭 다녀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했을 수 있다. 이왕 나선 길이니 온 가족을 대동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다 가져왔을 것이니,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이 이동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곳에 도착하는 일이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 과정을 기념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두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집 저집이 사정이 같을 것이고, 기념하는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통이 발달한 요즘에도 여행을 가거나 하면 작은 일도 사진을 찍어 기념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동이 훨씬 어려운 시절이니 더 소중한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했을 것 같다.

*파미르 –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 위치하는 고원이다. 현재도 고갯마루에는 야생 파가 자생하고 있다. 달마 대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총령(蔥嶺) 고개를 넘어가는데, 파가 많은 파미르 어디쯤을 넘은 듯하다. 총(蔥)은 파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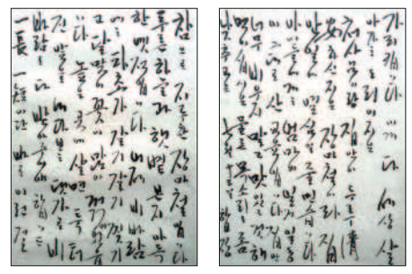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⑱ 법정 스님 1

'무소유'로 모두 깨어있게 한 스승



〈서신 1〉
사진과 사연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진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간판 내 걸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채소밭에서는 상치와 아욱이 잔뜩 자라 오르는데 혼자서는 다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살면 좀 뜯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군요. 이제 여름 냄새가 후끈거립니다. 오늘은 발을 꺼내 걸었습니다. 요즘 저녁으로는 국수를 삶아 먹고 있는데 콩 담가 놓은 게 있어 오늘 저녁은 밥을 해 먹어야겠습니다. 지난봄에 와서 고성능 스피커로 떠들던 소리 아직도 우리 불일의 뜰에 맴돌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십시오. 6월 15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참으로 지루한 장마철입니다. 푸른 하늘과 햇볕 본지 아득한 옛적입니다. 어제 비바람에는 파초가 갈기갈기 찢기고 달맞이꽃이 많이 꺾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살면 툭 터진 앞을 내다보는 대가로 비바람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일장일단이란 바로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게 다 세상 살아가는 도리이지요. 처사님이랑 집안이 두루 청안하신지요? 장마철이라 집안일에 열심일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일거일동이 그대로 산교육입니다. 집안 너무 비우지 말고 맛있는 것 해 먹이십시오. 물론 목소리도 좀 낮추고요. 7월 13일 합장



법정 스님을 뵙기 시작했을 때, 나는 20대였고 스님은 30대였다. 지금에서 생각하니 스님이나 나나 눈부신 시절이었다. 삶 자체가 눈부신 것이긴 하지만 지금과 많은 것들이 달랐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늘 가슴이 뛴다.

스님은 우리나라 현대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식 중의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한 시대의 대중을 화두 하나로 깨어있게 한 스승이셨다. 비록 그때의 가르침이 아직도 인류 대중에겐 요연한 일이지만 한 시대가 그렇게 지나간 것에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 또 그런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한 시대가 공유할 수 있을까.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렸던 그 가르침을 새삼 떠올려본다.

그렇게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스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다는 것과 주고받은 서신이 남아 있다는 것이 내겐 더 없이 영광이고 기쁨이다.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 속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엔 드러내지 않은 스님의 인정과 가르침이 들어있다.

〈서신 1〉은 언젠가 스님을 뵙고 돌아와 사진과 함께 올린 서신에 대한 답신이다. 텃밭의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스님을 떠올려본다. 한 시대의 화두였던 '무소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도 '인류애'가 아닐까. 국수를 삶고 콩을 담고 밥을 짓는 일에 삶을 두었던 하루하루가 큰 가르침인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서신 2〉는 어느 해 장마철에 주신 서신이다. 비바람에 파초가 찢어지고 달맞이꽃이 꺾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스님을 생각해본다. 그 마음이 아직도 철없는 나와는 많이도 다른 것이다.



1981년 6월,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왼쪽)과 필자 대원성.

탈종공고

• 사찰명 : 무애사
• 주 지 : 진 모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1길 1-2
• 승 번 : 071-0559

위 사찰과 승려 진모는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삼성암
• 주 지 : 진 관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24-3
• 승 번 : 071-0539

위 사찰과 승려 진관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법계사
• 주 지 : 무등 (승번 : 071-0535)
벽암 (승번 : 071-0619)
• 주 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1길 7-10

위 사찰과 승려 무등, 벽암 2人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